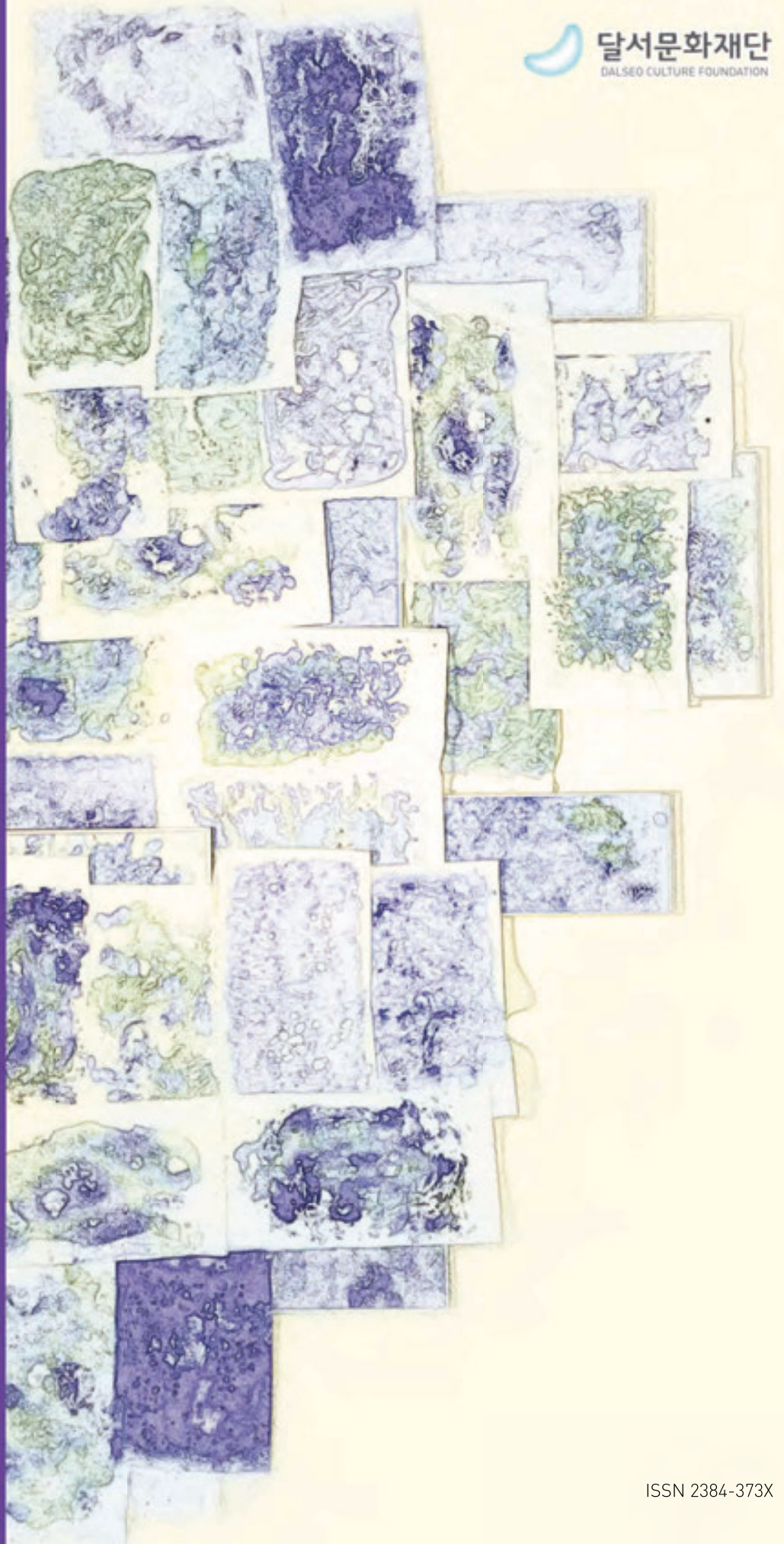


문화 만개

겨울호

vol. 06
2017. 12



웃는얼굴아트센터 기획 대구미술협회 초대전

2017. 12. 19 ~ 12. 29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Opening : 12. 20(수) PM. 6:00

주 최 :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휴무일 : 12. 25(월)

포크 릴레이 콘서트

FORK RELAY CONCERT

2017. 12. 13.WED ~ 15.FRI 7:30PM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12. 13 WED



'주위를 부르는 이름'
동물원

12. 14 THU



'나에게만, 나에게 넌'
박강수, 자전거 탄 풍경

12. 15 FRI



'따로 또 같이'
유리상자(박승화), 여행스케치(남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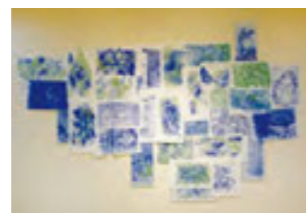


문화를 쓰다 6.

- | [인문학] 언덕의 시학(詩學) :
물러남[隱退] · 하산(下山)의 철학_최재목
- | [문화] 우리 범종(梵鐘), 각별함에는 이유가 있다_이성낙
- | [트렌드] 게임 속에서 활약하는 신들_고선윤

특집 <북유럽 문화예술> World & Culture 22.

- | [러시아 문화와 예술]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문학_박정곤
- | [음악]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음악_최훈락
- | [영화] 차갑고 뜨거운 북유럽 영화_김중기
- | [여행] 자연과 더불어 생을 나누는 북유럽_김승열



Coverstory

김도은작

놀이 선으로부터 시작하다
(monoprint, 2017)
PRINT MESSAGE 전시작.

목차

Contents

발행인 |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이병배
기획/편집 | 김은주, 이주현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대표전화 | 053)584-9711~2
홈페이지 | www.dsc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2017년 VOL.6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큼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Inside Culture

48.

- | [문학] 통나무집 아저씨,
소로우 탄생 200주년을 맞으며..._신영
- | [무대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_김지명
- | [미술기행] 도쿄에서 유럽 영화를_김영동

Arts &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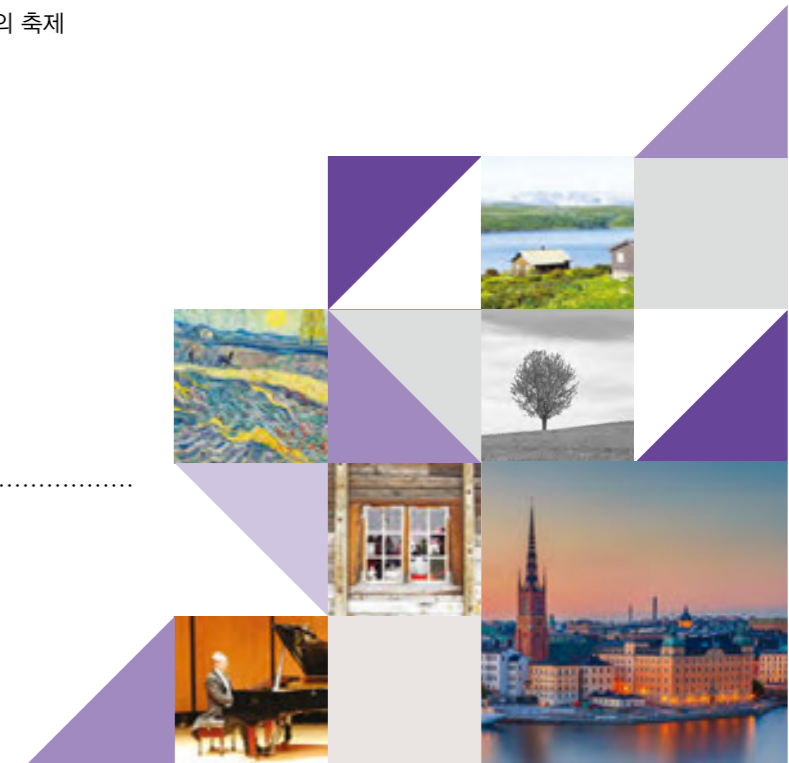
64.

- | [전시] 이야기로 만나는 유럽 빈티지 장난감
- 「STORY OF TOYS」展
- | [공연] 차이코프스키가 선택한
'알렉세이 나비올린' 피아노 리사이틀
- | [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의 결실 <나도 예술가>
- 웃는얼굴아트센터 수강생들의 축제

열매를 맺으며

70.

| 단신



언덕의 시학(詩學)

: 물러남[隱退] · 하산(下山)의 철학

글 최재목

‘행여 오시려나’ 기다리는 곳

“저 산 너머 물 건너 파란 잎새 꽃잎은/ 눈물짓는 물망초
행여나 오시나 기다리는 언덕에/ 입도 꿈도 아득한 풀잎에 이슬 방울...”

(가곡 ‘언덕에서’ / 민형식 시, 김원호 곡)

눈앞에 선연히 언덕이 떠오르고, 거기 서서 행여나 입이 오시나 기다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 언덕은 어딘가를 ‘바라보는 곳’이고 또 ‘무언가-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이다. 더 높아지면 우뚝 솟은 산꼭대기일 거고, 더 낮아지면 평지일 거다. 그저 적당한. 높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약간 낮지만 그렇게 낮지도 않은, 중용(中庸)과 중도(中道)를 닮았다. 심리적으로 평온한, 불안하지 않은 장소-지점을 말한다. ‘전망’과 ‘여망·기대·기다림’에 알맞은, ‘경계(警戒)’, ‘주의(注意)·집중(集中)’에서 유리한 곳이다. 삶의 온갖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안정된 공간의 확보는 인간이 생존 본능에서 익힌 환경-터-풍수-위상학적 지혜일 것이다.

‘농단(壟斷)의 자리’ VS ‘모범적’ 장소~‘현자’의 거처

『맹자』「공손추 하」에는 “부귀한 처지에 있으면서 농단을 사유물로 삼는 자가 있다(有私龍斷焉)”고 하여, 언덕이 부귀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독점하는 최고의 입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경우도 있다. 최근 유행한 ‘국정농단’의 ‘농단’인데, 여기서는 농단(壟斷)을 ‘龍斷’으로 썼지만 같은 말이다. ‘농(壟=龍)’은 ‘언덕’, ‘단(斷)’은 ‘깎아 세운 듯 높이 솟은’이란 뜻. 평지보다 약간 높은 언덕을 가리킨다. 시장 주변에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눈 여겨 시장의 판세를 읽고 이익을 독점했던 천장부(賤丈夫, 대장부의 반대)와 연관시켜 언덕이 스토리텔링 되었다. 높은 곳이나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에 언덕이란 지형적 상식이 동원된 것이다.

한편 언덕은 평지보다도 높으면서 ‘안정된’ ‘표준’의 장소로 묘사된다. 우뚝 솟아 뿔내는, 그만큼 불안-불편한 곳이 아니라 안정된 모범의 장소이다. 『맹자』「이루(離婁) 상」에서 맹자가, “성인은... 사람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니, 언덕이 천하를 덮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것을 만들되 반드시 언덕을 따르고(爲高, 必因丘陵), 낮은 것을 만들되 반드시 내와 못을 따르라(爲下, 必因川澤)고 하였으니...” 운운하여, 언덕=높음의 표준, 내·못=낮음의 표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언덕은 어진 자=현자의 자리 정도로 비유된다. 아주 높은 위치는 하늘이거나 그곳에 있는 해와 달이다. 『논어』「자장」에 보면, 속손무숙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험뜯자, 공자의 제자 자공이 이렇게 변호한다.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공자는 험뜯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다른 현자라면 언덕이라서(他人之賢者, 丘陵也) 넘어갈 수 있지만, 공자는 해와 달이라서(仲尼, 日月也)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높은 것은 하늘이다. 거기에 떠 있는 해와 달이다. 천상의 일들이다. 인간의 일은 지상의 일이다. 평범한 인간보다 높은 ‘현자의 자리’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언덕 정도의 높이로 안정치를 정한다.

가슴썸의 어중간, '기대고 비벌 곳'

널리 유포된 윈도우 XP의 푸른 언덕 배경화면은 언제 봐도 기분 좋다. 이 멋진 장소는 어디일까. 인터넷에 찾아보니, 미국의 사진작가 찰스 오리어가 1996년에 촬영한, 캘리포니아의 소노마 밸리 풍경이란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으나 웬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제주도의 오름을 쳐다봐도 그렇다. 경주의 오릉(五陵)을 봐도 그렇다. 어릴 적 놀던 뒷동산의 무덤들도 그랬다. “왜 그럴까?”라고 물었더니, “몽골 초원에서 오래 떠돌다 흘러온 우리 선조들의 피가 몸속에 남아있어서!”라고 말한 뇌과학 전문가도 있다.

“평평한 들판에 머물지 말라,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 세계는 중간 정도의 높이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 니체가 한 말이다. 아마도 언덕 위에서 어딘가를 쳐다보며 읊은 것이리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나의 근원에서 떠오르지 않고 내 마음의 중간쯤 어디에선가에서 비로소 떠오른다.” - 카프카가 일기(1910)에서 한 말이다. 마음의 어중간한 곳, 거기서 글이 나온다니, 아마도 가슴이 아닐까. 그렇다. 언덕은 사람의 신체에서 보면 가슴썸일 것이다.

수구지심=엄마의 품=모성=대지를 향한 초심

언덕은 보통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을 말하나 비유적으로는 ‘보살피 주고 이끌어 주는 미더운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 한자어로는, 강부(岡阜), 구강(丘岡), 구릉(丘壘), 구릉(丘陵), 구부(丘阜), 구분(丘墳), 능구(陵丘) 등이 같은 뜻이다.

외롭고, 힘들 때는 파스한 곳이 그리운 법. 한하운의 ‘보리 피리’라는 시가 떠오른다. “보리 피리 불며/봄 언덕/고향 그리워/피-르 닐니리//보리 피리 불며/꽃 청산/어릴 때 그리워/피-르 닐니리// (중략)//보리 피리 불며/방랑의 기산하(幾山河)/눈물의 언덕을 지나/피-르 닐니리” 이곳저곳을 방랑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은 ‘봄 언덕’이다. 가을도, 겨울도 아닌, ‘봄 언덕’은 ‘고향’의 상징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초심이 담긴 그 ‘언덕’으로, 시인은 돌아갈 수가 없다. 늘 그리워만 하기에, ‘눈물의 언덕’처럼, ‘언덕=눈물’로 겹쳐 읽힌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도 우리는 언덕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다. 수구지심(首丘之心) 또는 구수(丘首)나 호사수구(狐死首丘) 등으로도 표현하는데,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나서 어미젖을 빨고 뛰놀며 자라난, 추억의 굴(窟)이 있는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고향은, 원초적으로는 나의 ‘살결이 닿고’, ‘폭 안겨봤던’ 그 살가운 추억과 파스한 느낌이 공존하는 엄마의 품이고 자궁이고, ‘백골이 진토(塵土)되는’ 천지산천=대지이고, 무덤이다.

언덕은 무덤으로 연결된다. 우리도 “뒷동산에 묻히고 싶다”고 표현하지 않는가. 뒷동산이 자연스레 무덤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덕=무덤이라는 무의식이 작동한다. 이렇게 언덕은 ‘자궁→젓가슴/배→언덕/초원/오름→굴(窟)/무덤’이라는 어휘들과 인지적 유동성을 가지며 서로 가족관계를 맺는다.

희미한 옛 사랑[仁]의 그림자, 선(善)을 향하여!

한번 안겼던 추억이 깃든 곳=고향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느끼고, 그리고 죽을 때 다시 한 번 만나게 된다.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를 찾아서 도달한 곳이 언덕이고, 흙이고 무덤이다. 처음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예기』「단궁 상」에는 또 재미있는 대목이 보인다 : “군자가 말하기를 “음악은 그 저절로 생겨나는 바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는 근본(=자신을 있게 한 선조)을 잊지 않는 것이다(禮不忘其本). 옛사람의 속담에는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을 바로 향하는 것은 인(仁, 어둡=삶의 초심을 잊지 않는 마음)이다(狐死正丘首, 仁也).”라고 하였다.”

생명의 원초를 드러내는 ‘악(樂)’, 자신의 뿌리에 대한 경의의 표현인 예(禮)처럼, 삶(생명)의 초심을 잊지 않는 마음인 ‘인(仁)’을 나열한 것이다. 여우가 죽을 때 반드시 태어나서 자란 굴이 있는 언덕을 향해 머리를 바로 눕히는 마음을 ‘인(仁)’이라 규정한 것은 참으로 탁월하다. 『논어』「태백」에서, 증자는 「새가 장차 죽을 때에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을 때에는 그 말이 착한 법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삶의 완성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근원적인 선한 본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과 만물들이 지선(至善)을 향해 가는 그 지향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모든 기술과 탐구, 또 모든 행동과 추구는 어떤 선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선이란 모든 것이 목표 삼는 것이라고 한 주장은 옳은 것이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착한 것, 선한 것은 희미한 옛 사랑[仁]의 그림자이다. 그것은 죽을 때에 이르러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것이지도 모른다. 최종적 선택지이다.

인(仁)-신(身)은 모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몸’처럼 생명을 살리고 길러내는 원초적인 몸의 ‘힘(에너지)’을 보여주는 눈물겹도록 애뜻한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담은 글자이다. 지배하고 서열지우는 부성(父性)과는 달리, 모성(母性)은 생명을 낳고-살리고-기르는 창조적, 수평적 미학 에너지의 덩어리이다. 언덕은 그런 인(仁)의 마음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시학(詩學)이다.

상실의 아픔을 달래는 위로의 자리

천상병의 시 '강물'을 읽으면 언덕은 '울음'-'그리움'-'서러움'의 장소이다. 누군가가 앉거나 서서, '바라보는(쳐다보는, 조망·전망하는)'-'생각하는'-'그리워하는(바라는, 희망하는, 앞날을 기획하는)'-'기다리는' 곳임을 알려준다.

밝음과 어두움, 설렘과 아픔, 기쁨과 슬픔이 반반씩 섞인 곳이다. 언덕은 뒷동산과 인지적 유동성, 가족유사성을 갖는다. 동요 '하늘나라'의 가사,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하늘 바라보며/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하늘 끝까지 올라 실바람을 끌어안고/날개달린 천사들과 속삭이고 싶어요."에서 보듯이, 뒷동산은 '파란하늘-천사 얼굴-선녀 얼굴'을 '그려보고-끌어안고-속삭이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뒷동산이나 언덕은 하늘-정상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며, 그 쪽으로 차츰 다가서기 =오르기 위한 '중간 정도' 지점을 가리킨다.

고향~언덕~초가삼간(三間), 우리들 '로망의 밭'

유행가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문화심리의 밭(meme)이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노랫말에 박혀있는 우리들 로망의 요소와 형식이다. 그것은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무심하게, 낯설게 쳐다보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다 또 획 지나간다. 모습을 감춘다. 그 전에 짚싸게 붙들어야 한다!

"절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림습니다~." 유행가 '절레꽃'의 가사 앞 대목이다. '남쪽~고향~언덕~초가삼간~그리움', 이런 낱말로 짜여 있다. 또 하나 더 있다. "실버들 늘어진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정든 님과 둘이 살짝 살아가는 초가삼간 세상살이 무정해도 비바람 몰아쳐도 정이 든 내 고향 초가삼간 오막살이 떠날 수 없네." 유행가 '초가삼간'의 가사이다. '실버들~늘어짐~언덕~정든~님~초가삼간~오막살이'라는 낱말로 돼 있다. '언덕+초가삼간' 세트는, 명절 선물세트처럼, 참 특이한 조합의 '공간 시학(詩學)'을 보여준다. 실루엣만 남기면 무덤-젓가슴-반달 같은 이미 지일 테다. 이런 미니멀리즘은 우리 전통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근대 이후 서구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자세히 들여 다 봐야 할 대목이다.

여하튼 위의 노래에 나오는 '언덕'은 걸음을 포기한 체념의 장소나 목상과 침묵의 자리가 아니다. 숨소리가 들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신(生身)의 터디고, 느리게 걷다가, 쉬는 곳이다. 잠시, 못 이긴 듯, 흔들 흔들 실버들처럼 정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실버들 늘어짐-초가삼간-오막살이면 된다. 많은 소유욕이 필요치 않다. 소유의 거처지가 아니라 존재의 거처지이다. 모든 존재들의 모공이 열려 있는 곳이다. 자발적 비움과 능동적 씬의 형식만이 있는 곳이다. 자신을 세계에 다 열어놓는, 모두 풀어놓는 곳(쉼터)이다. 마치 예전에 아낙들이 껌안은 아이에게 가슴을 풀고서 살짝 꺼내서 물렸던 젓가슴처럼, '호(好)' 자가 보여주는 생명 존재의 에로티시즘-미학의 탄생을 발견한다.

'물러남[隱退]·하산(下山)' 때 머무는 곳

어느 날 이렇게 나에게 '언덕'이 찾아왔다. 아니 보이기 시작했다. 환영일까도 생각했다. 강 언덕, 모래 언덕, 바람의 언덕, 뒷동산... 몽마르뜨 언덕, 폭풍의 언덕... 뭐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릴케가 '두이노의 비가'에서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디어 내는 무서움의 시작일 뿐..."(제1 비가)이라 말했듯이, 내가 막 발견하기 시작한 이 언덕의 아름다움은 차츰 두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게다가 찬바람이 부는 계절. 그리고, 따스한 구석들이 생각나는 요즘, 더불어 '물러남[隱退]·하산(下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 눈이 머문 곳이 '겨우' 아니 '이제사' 언덕으로 향한 것이다. 내 의식의 소실점(消失點)에 뜬금없이 언덕이 나타난 것이다. 먼 곳으로만 떠돌던 내 사유의 안착지. 유랑하던 영혼의 '머물 곳'='거처'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고은이 말한 "내려갈 때 보았네/올라갈 때 보지 못한/그 꽃"의 꽃들이 보이는 언덕 자리 말이다.

나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비틀비틀... 어정대다가 새로운 길로 접어들 때를 맞이한 거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뻐해야 할 일 아닐까. 공자의 말처럼, '불역열호(不亦說乎)! 이것 또한 기쁘지 않으랴!' 돌이켜보면 시간 시간, 마디마디 푸르렀던 삶, 아니었던가. 눈물겹도록 어려서 아팠고, 아파서 오히려 내 것이었던 삶, 아니었던가.

수운 최제우가 득도한 후에 '한울님(天)과 너 한 짝, 나 한 짝 식으로, 한 구씩 지은 '화결시'(『동경대전』)가 심장에 비수처럼 와서 박힌다. "방방곡곡행행진(方方谷谷行行盡), 수수산산개개지(水水山山箇箇知)"- "방방곡곡 돌아보니, 물마다 산마다 날날이 알겠더라." "송송백백청청립(松松栢栢靑靑立), 지지엽엽만만절(枝枝葉葉萬萬節)"- "소나무 잣나무는 푸릇푸릇 서 있고, 가지가지 잎새마다 만만 마디로다." 오직 그곳만 보고 기어오를 때는 꼭대기만 보았다. 하산할 시점에, 적당히 머물러야 할 자리를 생각해야 할 때, "소나무 잣나무는 푸릇푸릇 서 있고, 가지가지 잎새마다 만만 마디"임을 알게 되리라.

어쩌다 중(中)+년(年), '슬그머니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는'

'중년'이란 나이는 차츰 언덕에 서야 하는 나이이다. 산꼭대기=정상에서 적당히 내려서서, 올라갔던 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또 내려갈 길을 찬찬히 눈여겨 봐 뒤야 할 시점이다.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한다.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적당히 내려서고 갈아타고 떠나는 각오와 연습을 해야 한다. '노(老)'='늙음'이라는 글자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릴 때 그때서야 '어이쿠!' 하며 생각할 일들이 아니다.

'노'는 노쇠(老衰), 노약(老弱)처럼 쇠약과 퇴락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노숙(老熟), 노련(老鍊)처럼 지혜와 경험의 면에서 숙련을 보여주기도 한다. 내리막길에는 올라갔던 고통을 되새기며

더욱 여유를 부릴 수 있다. 빠죽이 시야와 안목이 생겨난다. 빠뜨린 것들을 챙기고, 오버한 것들은 '계 자리로 돌려놓는'(復其所過) 마음(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노'는 노탐(老貪), 노욕(老欲), 노망(老妄)처럼, 탐욕과 망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몸이 있는 한 욕망이 있다. 죽어서야 비로소 그 움켜쥐는 손가락의 단단한, 양갈진 힘을 푼다. '손가락 들 힘', '문지방 넘을 힘'이 있는 한 그 '힘'(=욕망)은 작동된다. 탐진치(貪瞋癡)의 믿는 구석은 몸이다. 몸이 없으면 없었을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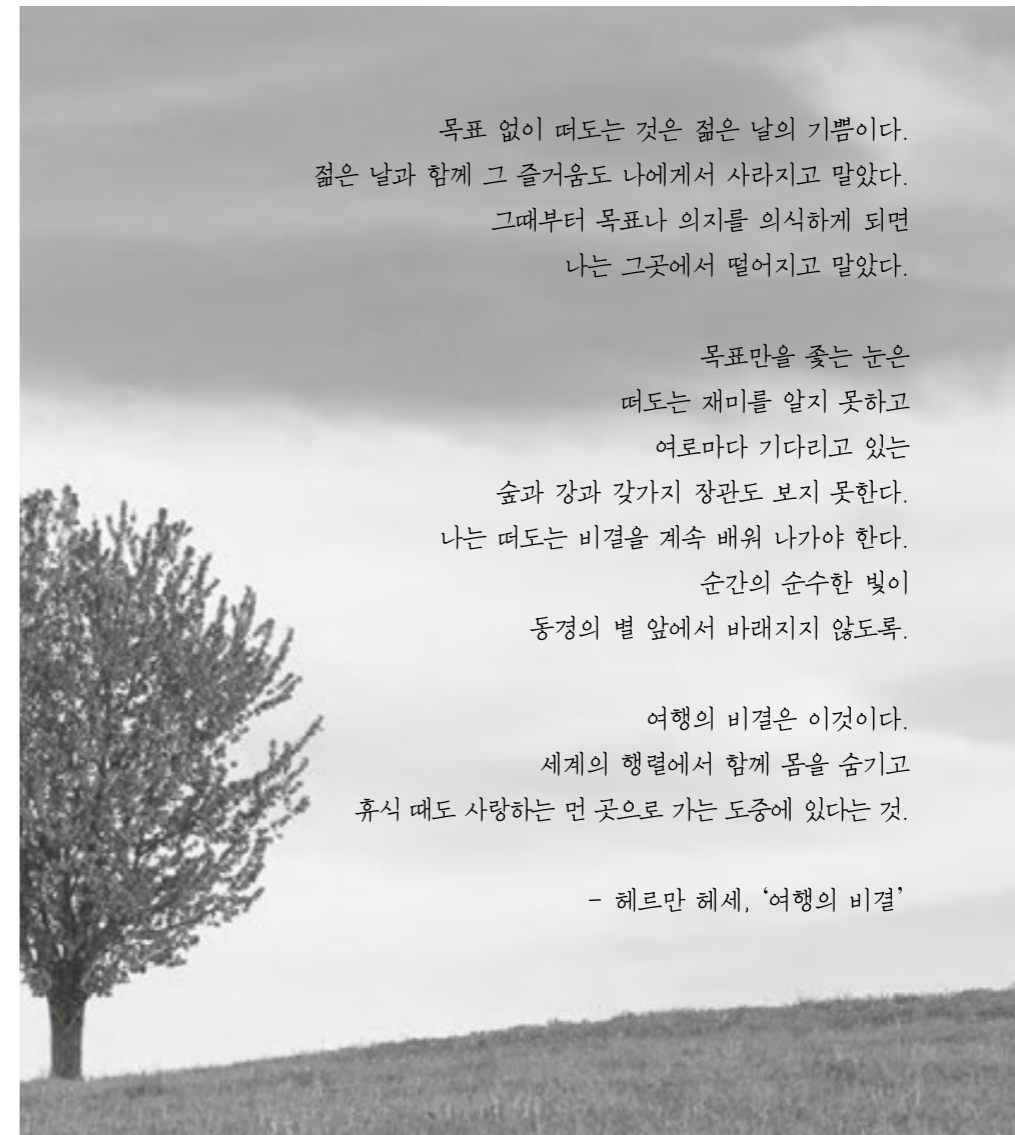
나무들이 가지를 뺏어가서 적당한 지점에 멈추듯이, 자연은 법칙[天則]을 가지고 있어 그 법칙대로 크다가 멈추는 법이다. 그런 '어느 선'에서 만물은 만족하고(知足) 머물 줄 알기에(知止) 하늘을 찌른다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괴테도, 로댕도, 그렇게 생각했다.

탐욕도 정도껏 허용하라! 끌리고 끌림도 허하라! 그러나 힘 빠지면 하라고 해도 못한다! 나이가 들어 다리에 힘 풀리고, 몸에 힘 빠지고 근력-기력이 줄고, 눈이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아프고 하면 움직이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속으로 용만 써대지 '선=법도=구(矩: 잣대, 룰)'를 결코 넘어서 수 없다. 공자가 "칠십즈 되어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룰(법도)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칠십이중심 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는 이런 뜻이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山行>에서 '서리에 물든 단풍잎 봄꽃보다 더 붉어라[霜葉紅於二月花]' (상엽홍어이월화)라고 했다. 노년이 청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삶의 '여로마다 기다리고 있는' 쉼터

언덕은 적당히 차고 기운 자리이다. 반달이라 해도 좋다. 내가 목표 없는 시야, 목표 없이 머뭇을 생각할 때 '언덕'의 의미가 잘 읽히기 시작했다. 언덕은 끝이 아니고 '도중'-'어중간'이다. 그것은 삶의 '여로마다 기다리고 있는' 쉼터이다. 소유함의 거처가 아닌 존재함의 거처라는 발상에서, 삶의 그런 여행 속에서, 언덕은 재발견되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시 '여행의 비결'은 내가 말하고 싶은 '언덕의 시학'을 진정성 있게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의 행렬에서 함께 몸을 숨기는' 진정한 '몰려남[隱退]·하산(下山)'의 철학도 들려준다. "방방곡곡 돌아보니, 물마다 산마다 낱알이 알겠더라."는 수운의 말처럼, 헤세는 '여로마다 기다리고 있는/숲과 강과 갖가지 장관'을 발견해보라고 권한다.



목표 없이 떠도는 것은 젊은 날의 기쁨이다.
젊은 날과 함께 그 즐거움도 나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목표나 의지를 의식하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목표만을 좇는 눈은
떠도는 재미를 알지 못하고
여로마다 기다리고 있는
숲과 강과 갖가지 장관도 보지 못한다.
나는 떠도는 비결을 계속 배워 나가야 한다.
순간의 순수한 빛이
동경의 별 앞에서 바래지지 않도록.

여행의 비결은 이것이다.
세계의 행렬에서 함께 몸을 숨기고
휴식 때도 사랑하는 먼 곳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

- 헤르만 헤세, '여행의 비결'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 일본 츠크바대학원 석사 및 박사
- 하버드대, 도쿄대, 베이징대, 라이덴대 등에서 연구
- 한국양명학회 회장 역임
- 현재 한국일본사상학회 회장
- 저서/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노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외 다수
- 200여 편의 논문



우리 범종,梵鐘 각별함에는 이유가 있다

글 · 자료 이성낙

¹⁾ 에밀레종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봉덕사종(鳳德寺鐘)
(제작 771년, 높이 375cm, 직경 227cm)
사진제공 : 놀와



‘한국의 범종’ 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에밀레종’, 또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봉덕사종(奉德寺鐘)’을 떠올리게 된다.¹⁾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에밀레종에 얽힌 이런저런 설화를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에밀레종은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서려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필자는 ‘에밀레종’ 하면 떠오르는 단상 몇 편이 있다.



1 : 필자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이다.

이 얘긴 1950년대 에밀레종에 대한 일화를 들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에밀레종에 얽힌 설화 때문은 아니다. 선생님께서 “오래전 경주를 방문한 스웨덴 왕세자가 에밀레종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지금껏 들어본 범종 소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감탄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해주었다. 당시 필자는 이 얘길 듣고 한편으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건 손님이 흔히 내놓는 인사치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960년대 독일 유학 시절 때 일이다. 독일을 방문한 구스타브(Gustav VI Adolf, 1882~1973) 스웨덴 국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아, 정말 훌륭한 국왕이군!” 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신문기사는 스웨덴 국왕이 유럽 고고학계(考古學界)의 거성으로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칭찬해 마지않았다. 그 무렵 필자는 전통적으로 고고학은 유럽 사회의 귀족이나 왕족이 일궈낸 특별한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순간 어쩌면 구스타브 국왕이 오래전 경주를 방문한 그 왕세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웨덴 왕세자가 1926년 10월 10일 경주를 방문해 성덕대왕신종의 타종 소리를 들었다”는 기록을 찾았다. 요컨대 당시 스웨덴 왕세자는 전문가로서 코멘트를 한 것이었다. 결코 필자가 어렵פות이 생각한 것처럼 인사치레로 찬사를 보낸 게 아니었던 것이다.

2 : 일본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주최 측이 마련한 일본 문화 유적지 방문 프로그램과 얽힌 에피소드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동료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여러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한 사찰(寺刹)을 방문했

는데, 가이드가 큰 범종 앞으로 우리 일행을 안내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순간 필자는 긴장했다. 가이드가 범종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범종은 얼핏 봐도 한반도에서 건너온 범종임이 틀림없었다. 가이드는 일행에게 동양 종과 서양 종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 범종의 제작 연도를 16세기쯤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범종이 옛 한반도에서 '선물(Present)로 받은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그나마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 다음은 가야금의 대가 황병기 교수가 전해준 말이다.

“세계 음악인이 모여 세계 각국의 종소리를 평가하는 모임에서, 한국의 봉덕사 신종 소리를 최고로 평가했다고 한다.”(한영우 교수)

한국 범종은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 여실히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우리 문화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 범종이 중국에서 불교문화와 함께 전해진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까닭에 더욱더 우리 범종이 그토록 중국과 다르게 진화했는지 신기하기조차 하다.

범종의 외양은 한·중·일 삼국이 각기 다르다. 먼저 한국 범종의 몸통은 상부에 비해 중간 부위의 직경이 더 넓어 불룩하게 나왔다가 하부 부분이 다시 약간 좁아진다. 이에 반해 중국 범종은 종신(鐘身) 밑 부분이 열려 하부의 직경이 눈에 띄게 크다. 그리고 일본 범종은 대체적으로 우리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삼국의 범종은 맨 윗부분인 용뉴(龍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한국 범종을 보면 종의 '머리' 부위에 용(龍)의 몸체를 형상화한 고리(걸개)가 있고, 그 옆에는 거의 예외 없이 '파이프(Pipe)' 모양의 음관(音管)이 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 범종에서는 이를 볼 수 없다.²⁾

주해 : “불교가 밀려난 조선 시대에는 종의 기능이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변하면서 음관이 사라졌다. 그래서 종로의 보신각종(普信閣鐘)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의 종에는 음관이 보이지 않는다.”(한영우 교수)

그리고 한국 범종 밑에는 '음받이'처럼 땅을 움푹 파놓은 함몰 부분이 있다. 요컨대 일본이나 중국의 범종은 땅에서 거리를 두고 높게 걸려 있는 반면, 한국 범종은 지표면(地表面)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곧 '음받이' 바로 위에 걸려 있다.³⁾

이처럼 음관이 있다는 점과 범종의 하부가 살짝 좁아진다는 점, 그리고 범종의 하구(下口) 바로 밑 지표면에 '음받이' 구조물이 있다는 점을 종소리의 생성 과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이 선명해진다.

육중한 통나무로 밖에서 범종을 타종하면, 종신 내부에서 생성된 소리가 마치 큰 항아리 속에 갇힌 것처럼 소용돌이를 일으키다 대부분 범종의 하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종신 하대 밑에 위치한 움푹 패인 '음받이'에서 다시 반사되어 옆으로 저 멀리 퍼져나간다. 아울러 종신 내부에 남아 있는 소리 일부가 상부에 있는 음통을 통해 나오면서 전체 음색을 풍요롭게 조성한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하모니', 곧 음향(音響)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범종은 우리 문화의 코드인 '천지인(天地人)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타종에 따른 음이 음관을 통해 위로 치솟으니 하늘(天)이요, 소리가 지표를 통해 번져나가니 땅(地)이요, 마지막으로 사람(人)이 타종하니 바로 범종에서 '천지인 사상'을 읽을 수 있다.(한영우 교수)

우리 범종에 서려 있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 코드를 더듬어보자니 세계 명사들의 헌사(獻辭)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네 범종은 근거에 바탕(Evidence based)을 둔 가치 있는 문화 보물이 아닐 수 없다. 실로 자랑스럽다.



³⁾ 범종 밑에 움푹 파인 '음받이'
사진제공 : 놀와



²⁾ 에밀레종의 머리부분의 장식 용뉴(龍鈕)
용(龍)의 몸체를 형상화한 고리(걸개)와 음관(音管)
사진제공 : 놀와



이성낙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현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이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게임 속에서 활약하는 신들 神

글 · 자료 고선윤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게임 속 신화

“달님을 ‘오-쓰키-사마(お月様)’라고 한다면 해님은 뭐라고 해?”라는 말들이 오가더니 누구 하나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짱인가”라고 하고, 주변 친구들은 까르르 웃는다. 다들 이 이름을 아는 모양이다. 아직 히라가나도 제대로 못 쓰는 놈들이 신화 속의 이런 긴 이름을 외우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태양신이자, 일본 천황의 조상신이다. 일본의 건국설화는 남신 이자나기와 여신 이자나미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이 두 신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는 대신 여러 섬들을 낳고 이어서 땅신, 바람신, 물신, 초목신 등 많은 신들을 낳아서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 신을 낳던 이자나미는 음부가 타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자나기는 이자나미를 잊지 못하고 황천국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황천국의 음식을 먹고 인간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된 다음이었다.

여차여차 황천국에서 돌아온 아자나기는 부정한 곳에 다녀왔다고 몸을 씻는데 씻을 때마다 신들이 태어났다. 재앙의 신들이 태어나고, 재앙을 다스리는 신들이 태어났다. 길의 신, 항구의 신, 항해의 신들도 만들어졌다. 이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고유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왼쪽 눈을 씻을 때 ‘아마테라스오미카미’, 오른쪽 눈을 씻을 때 달의 신 ‘쓰쿠요미노미코토’, 코를 씻을 때 바다의 남신 ‘스사노오노미코토’가 태어났다. 각각 천상계, 밤의 세계, 바다를 맡기고 다스리도록 했다. 신들 중 가장 귀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삼귀자(三貴子)라 한다.

게임 세계의 주인공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알고 있다. 그것도 학문적 이해가 아니라,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그 긴 이름을 내뱉을 수 있다니 전공자로서는 놀라울 따름이다. 어찌 그리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게임에 나와요”라는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발음도 어려운 이 긴 이름들이 게임 세계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보니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유희왕’ 카드 속에서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그림을 본 기억이 있다. 이렇게 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일본 천황의 조상신이기에 전에 이들의 게임 속에서 강한 힘을 가진 캐릭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 세계에서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가장 센 신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란다. 그 보다 더 센 신들이 여럿 있는데, 무엇 무엇이라고 발음도 꼬이는 기다란 이름을 말한다. 나름 일본문화를 전공했다는 나도 잘 모르는 이름들이다. 여하튼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이길 수 있는 성격의 신들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신들만이 아니라 전국시대의 쇼군들도 게임 세계의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쇼군들은 역사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 있으니 그것만으로 이미 승부가 끝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상관없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캐릭터 고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전국시대의 영웅 오다 노부나가도 여자로 등장하는 경우까지 있다니 원래 그 인물과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새로운 모양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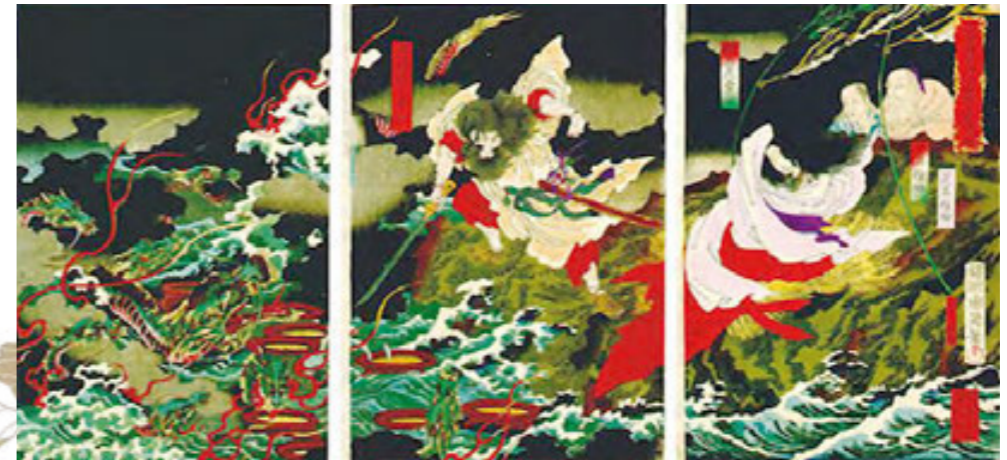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같은 분은 게임 속에서 어떤 활약을 하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한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훌륭한 장군님들을 그런 게임 속에 마구 등장시킨다는 것은 불경스럽다는 거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니, 게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재미나기만 하다.

아프리카에서도 아는 신(神)

서아프리카의 이름도 생소한 부르키나파소의 학교에서 나에게 “스사노오를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나는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안다고 좀 잘난 척했다. 스사노오, 이른바 바다의 신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삼귀자의 하나인데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황천국의 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하도 울어서 산천의 나무와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였다. 급기야 화가 난 아버지 이자나기는 그를 추방하는데, 쫓겨난 스사노오는 이즈모 지방의 강변으로 내려가 몸이 하나 머리와 꼬리가 여덟 개인 괴물을 죽이고 거기서 훌륭한 칼을 얻는다. 그 칼이 바로 지상 세계 통치를 맡은 니니기노미코토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하사했다는 삼중신기(옥, 거울, 검)의 칼이라는 사실까지 이야기했다.

멀고 먼 아프리카 땅에 참 신기한 놈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모두 다 게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 아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스사노오노미코토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사노오가 등장하는 게임 세계를 알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 통역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한 이야기를 이 아이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삼중신기의 그 칼을 구해서 게임의 일인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궁금하다. 여하튼 아프리카의 꼬맹이까지 일본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는 팔백만의 신, ‘야요르즈노카미(八百万神)’가 있다고 한다. 이 많은 신들은 신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의 게임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일본의 조상신들은 게임을 통해서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내가 어린 시절 만화책을 통해서 그리스신화의 신들을 만났던 것처럼.



고선윤

- 백석예술대학교 외국어학부 겸임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어일문학 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저서 <토끼가 새라고?>, <헤이안 시대의 사랑가 풍류> 등 다수

Nordic

We come from the land of the ice and snow
우리는 얼음과 눈의 나라에서 왔지

From the midnight sun where the hot springs flow
온천수가 흐르는 백야로부터

Hammer of the gods will drive our ships to new land
신들의 망치는 새로운 땅으로 우리의 배를 이끄노라

To fight the hordes and sing, and cry
거인들과 맞서 싸우고, 노래하고, 외치네

“Valhalla, I am coming”
“발할라!, 내가 왔노라”

Led Zeppelin - Immigrant Song

‘노르딕 문화예술’

북유럽 문화예술을 특집으로 기획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르’ 이야기가 떠올랐다.

지난 가을 관객들을 들뜨게 한 영화 ‘토르 : 라그나로크’에서 주제가처럼 흐르는 고음의 폭발적인 노래는 ‘레드 제플린’의 ‘Immigrant Song’이다.

레드 제플린과 밴드가 아이슬란드에 체류할 당시, 북유럽 신화와 바이킹의 정복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노래로 이유 있는 선곡이었다.

망치 하나로 매력을 뽐어내는 ‘토르’를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영화에서는 북유럽의 자연과 신화, 우주관을 살짝 보여주었다.

자연과 신화에 바탕을 둔 북유럽 문화예술 속에 내재된 생명주의, 자연주의, 여성해방, 미니멀리즘은

문학, 미술, 음악, 만화, 영화, 과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입센, 뭉크, 그리고, 시벨리우스, 알바알토, 말갈랑이 빼빼 등등...

이번 특집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과 러시아 혁명 100주기에 맞춰 거장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문학’,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음악’, ‘차갑고 뜨거운 북유럽 영화’, ‘자연과 더불어 생을 나누는 북유럽’ 등 다양한 북유럽 문화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자연과 신화로 향수(乡愁)를 자극하며,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가 공존하는 북유럽으로 떠나보자!

Valhall(발할) : ‘전사자(戰死者)의 큰 집’, ‘기쁨의 집’이라는 뜻으로 북유럽인이 생각해 낸 일종의 이상향

글 · 편집자 김은주



Russia

도스토예프스키의 삶과 문학

글·사진 박정곤

왕조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가. 바람 찬 네바 강 건너 불어 닥친 혁명의 기운은 어느덧 궁정을 휘감는 듯 하더니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기점으로 로마노프 왕조는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진다.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여제로 이어오며 전 유럽을 호령하던 무적의 러시아 왕조는 농노제 폐지와 러일 전쟁, 1차 세계대전 등 역사에 족적을 남긴 대사건들과 함께한 알렉산드르 2세와 3세, 그리고 니콜라이 2세에 이르러 끝내 막을 내리게 된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17년 10월의 러시아는 여기저기 온통 혁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비단 혁명과 연관된 곳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 곳곳에 혁명과 문학을 주제로 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준비해 있다. 혁명의 도시이자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사용되었던 선전문구와 현수막, 현장 사진들이 전시되었으며, 밤이 되면 박물관의 외벽은 평소와 달리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조명으로 치장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다.

질곡의 세월 속 러시아인들에게 뺏속 깊이 각인된 일련의 혁명을 반추하다보면 러시아의 수많은 문호들이 혁명과 역사를 함께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1825년 12월 혁명을 꿈꾸었던 데카브리스트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A. 푸시킨이 그러하였으며, 20세기 초 활동하였던 천재 시인 예세닌과 마야코프스키 또한 1917년 10월 혁명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혁명을 기치로 민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문학가가 되었을 터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질병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처럼 혁명이란 인류에게 서로 다른 대척점에서 있는 창조와 소멸의 두 열쇠를 쥐어주었으니. 이번 호를 통해 필자는 10월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인 1848년 당시 혁명 세력에 동참하였다 시베리아로 머나먼 유행을 떠났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일대기와 문학세계를 잠시 들여다보고자 한다.

◀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동상



가난한 의사의 집안에서 태어나다

모스크바의 심장부에 위치한 레닌도서관 앞뜰에는 유독 쓸쓸한 눈빛을 한 노인의 동상이 홀로 서 있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들어올 법한 이 큼지막한 동상은 움푹 들어간 눈에 갱마른 몸을 하고 있으며 그 시선은 우수에 가득 찬 채 아래로 향하고 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쓸쓸해 보이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러시아인이든 외국 관광객이든 상관 없이 실로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기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유인 즉, 바로 이 동상의 주인공은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사실주의의 최고봉이라 불리었던 도스토예프스키였다. <죄와 벌>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도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도, 시성(詩聖) 푸시킨마저 차지하지 못한 러시아 지성들의 성지인 레닌도서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다.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의 변두리에 위치한 마린스키 병원의 사택에 아기의 울음이 들린다. 가난한 농민들을 치료하던 자선병원의 의사였던 미하일 도스토예프스키의 집에 8형제 가운데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장래 세계 문학과 러시아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대작가가 이곳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형과 함께 이곳 빈민 병원을 놀이터 삼아 유년기를 보냈다. 농민들과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눈앞에서 직접 봐 왔던 터라



모스크바 도스토예프스키 생가 내부, 바로 이방에서 형과 함께 지냈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후 펼쳐질 문학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러나 정작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버지는 그가 병원 밖으로 나와 빈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관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민중들의 삶이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이니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처사였을지도 모른다.



모스크바 도스토예프스키 생가 내부

열여섯이 되던 해인 1837년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후 아버지는 도스토예프스키를 포함한 두 큰아들을 공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페테르부르크로 떠나보낸다. 그러나 불행은 연이어 찾아온다. 했던가, 어머니의 죽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 선량했던 아버지는 점차 포악해졌으며 1839년 어느 날 모스크바 남부에 마련한 조그만 영지에서 농노를 학대했다 반기를 든 이들로부터 살해당한다. 바로 이 시기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파란만장한 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삶이 시작된다.

페테르부르크 혁명단체에 가담하다

페테르부르크로 이사 온 형제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아직 정식으로 공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에 기숙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비싼 임대료를 피해 페테르부르크의 구석구석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공병학교에서의 훈련과 교육도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와 형 미하일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이곳으로 왔을 뿐 군사교육보다는 문학과 창작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병학교에서도 도스토예프스키는 문학 서클을 만들어 활발히 글을 썼으며, 1843년 졸업 후 얼마간 공병 장교로 근무하다 전문적인 문학 활동을 위해 곧바로 퇴역하였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세계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유형 전이요, 다른 하나는 유형 지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난 후이다. 유형 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의 영향을 많이



10월 혁명 당시



에르미타주 박물관 내부 혁명 관련 사진과 현수막들이 전시되어 있다

담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발표된 이후 당대 저명했던 작가이자 비평가였던 벨린스키와 네 크라스프가 '새로운 고골'이 등장했다며 그의 작품을 극찬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같은 해 발간되었던 <분신>은 전작에 비해 큰 인기를 얻지 못하였으며 비평가들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이후 1848년부터 도스토예프스키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상이 페트라세프스키의 서클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페트라세프스키는 외교부 관리로서 프랑스의 공산적 사회주의자 S.푸리에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은 점차 제정 러시아의 체제를 비판하는 모임으로 변해갔고 비밀리에 잠입한 대학생 안토넬리의 밀고로 단체의 활동은 발각되고 만다. 그 결과, 1849년 4월 반정교, 반정부 성향의 글을 쓴 벨린스키의 서한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체포되었으며, 1849년 12월 22일까지 페트로파블로프스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유형, 결혼, 그리고 죄와 벌

1850년 1월부터 1854년 1월까지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의 유형지인 옴스크에서 복역하게 된다. 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우랄 산맥을 넘어 페름과 토볼스크를 거치는 기나긴 시베리아 유형지로의 여정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간질의 악화였다. 이 시기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문학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4년간의 복역과 연이은 사병 복무, 그리고 1856년 하사관으로 복직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시베리아에서의 생활은 도스토예프스키를 문학 너머의 세계로 유평하였다.

그럼에도 이때 당시의 경험들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백미로 간주되는 후기 문학 작품들에 커다란 양분을 제공하였으니, 1876년에 창작된 <작가의 일기>를 비롯하여 1880년 발표된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도스토예프스키의 수많은 작품들이 유형지에서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형 집행을 기다리게 된다. 다행히도, 최초에 그는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후 4년으로 감형 받는다.

그와 함께 혁명에 가담했던 이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집행 당일 세묘노프스키 연병장에서 사면을 받은 일화는 아직까지도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 유인 즉, 처음부터 황제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저 경각심을 일깨워주겠다는 미명하에 해프닝을 꾸민 것이다. 황제가 만든 운명의 장난으로 사형수 가운데에는 선고 당일 정신이상 이 생겨버린 자도 있었다. 마치 진짜 사형처럼 머리에 복면을 씌우고 통나무에 몸을 묶었으니 이보다 더 잘 만들어진 연극(well-made play)이 또 어디에 있으랴. 이처럼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을 도스토예프스키는 <백치>와 <작가의 일기>를 통해 기록하였다.

죄와 벌 창작 당시 도스토예프스키가 살던 집



죄와 벌 창작을 기념하는 비석. 건물 한 쪽 벽에 마련되어 있다

유형지 생활의 끝 무렵인 1857년 2월 6일 도스토예프스키는 유부녀였던 마리아 이사예바와 밀회 끝에 결혼하게 된다. 결혼식은 유형생활을 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쿠즈네츠크라는 시베리아의 도시에서 거행되었으며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였다.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세미팔라틴스크로 돌아와 알타이의 바르나울로 이동하는데, 그녀와의 결혼은 작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시베리아 유형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온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빛을 갠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써서 보내고 선금을 받아 생활고와 빚을 해결하였다. 마감기일에 쫓겨 가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고단한 생활이 언제나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1864년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의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심약했던 아내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마저 사망하게 된다. 형과의 출판 사업에서 얻은 막대한 빚더미가 그에게 고스란히 물려졌으며 이 빚을 갠고자 적은 선금을 받

아가며 작가는 글을 써야만 했다. 바로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 희대의 걸작 <죄와 벌>이다.

사회 심리적, 혹은 사회 철학적 소설이라 불리기도 하는 <죄와 벌>은 1865년에서 1866년에 걸쳐 창작되었는데, 최초에는 잡지 <러시아 통보>지에 연작 형식으로 발표되었다가 1년 뒤 독립된 서책으로 재간되었다. 이때 내용도 조금 수정되었다. 비범한 인물, 다시 말해 초인에 대한 관념에 빠진 괴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작가의 구상은 아이러니하게도 1863년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도박으로 빚을 진 도스토예프스키가 전담포 주인에게 돈을 빌린 자신의 실제 경험담에서 비롯하여 작중에 등장하는 노파와 라스콜리니코프 사이의 구도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페테르부르크의 그리보예도프 운하를 따라 그늘진 도시 안쪽으로 살포시 걸어 들어가다 보면 <죄와 벌>이 시작되는 K 다리를 비롯하여 운명의 계단을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았던 집

*Prestuplenie i
nakazanie*



매일처럼 지나야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다락방과 노파의 집,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안겨준 소년의 집을 현실에서도 찾아갈 수 있다. 이곳은 작가의 창작세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공들이 실제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벽면에 붙여진 기념비와 함께 명소로 남아있는데, 이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와 그의 <죄와 벌>을 아꼈던 러시아인들의 그윽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죄와 벌>을 필두로 도스토예프스키는 걸작 장편들을 연이어 창작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평생의 은인인 속기사 안나 스니트키나를 만나게 된다. 사실, <죄와 벌>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도 안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도박사>와 <죄와 벌>을 창작할 당시 작가는 마감 시간이 부족해 속기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스무 살이었던 미래의 아내 안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하였고, 이런 연으로 작가의 전속 속기사가 된 그녀는 도스토예프스키가 구술하면 속기로 남겼다 집에 돌아가 밤새 정서를 하여 다음날 가져다주었다 한다. 그런 안나에게 매력을 느낀 도스토예프스키는 조심스레 구혼을 하였고 안나의 어머니로부터 허락을 받아 1867년 2월 결혼하게 된다. <백치>, <악령>을 발표하고 점차 빛의 허덕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모두 악착같이 그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필사하였던 아내 안나의 도움에서 비롯되었다 하니 그녀의 존재는 작가에게 영원히 빛이 아닌 빛으로 남으리라.

삶의 행복을 맛보다, 스타라야 루사

도스토예프스키가 생을 마감한 집필실, 집 박물관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사이에 위치한 노브고로드 주(州)에는 폴리스티 강이 흐르는 아담하먼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스타라야 루사'라는 도시가 있다. 스타라야 루사는 도시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나도 작아 마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지만 예전부터 이곳은 청정의 자연과 온천수로 많은 이들이 찾던 곳이다. 여름이면 강변의 물푸레나무와 자작나무들이 무성한 잎을 뽐내며 지나던 새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가을이면 우수에 찬 낙엽들이 시내 곳곳에 자리한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를 타고 내려 지나는 이들의 가슴을 잔잔히 적셔 놓기도 한다.



바로 이곳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여름 별장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곳에서 작가가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고 말한다.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는 1872년 5월 18일 처음으로 스타라야 루사에 온 이후로 거의 매년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여름을 지냈다. 당시만 하더라도 딸 류바(류보비)는 세 살이 채 되지 않았으며 아들 페자(표도르)는 한 살도 되지 않았다. 성 게오르그 사원의 이오안 루만체프 신부의 집에서 첫째 여름을 날 때, 이곳의 초록의 정원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며 아버지 도스토예프스키는 걸작 소설 <악령>의 집필을

마무리하였다. 물론 그리 따뜻하지 않았던 여름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감기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페레리치카 강변에 자리한 퇴역 중령 A.그리베의 별장을 빌려 다시 스타라야 루사를 찾을 정도로 가족들은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1875년 8월 10일 막내아들 알렉세이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1876년 5월 마침내 도스토예프스키는 스타라야 루사에서 가족들이 지낸 그리베의 별장을 구입하였다.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 도스토예프스키는 페테르부르크에 올라와 결혼 전부터 시작하여 거의 스무 군대를 이사해 다녔다. 결혼 후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와 가족은 타인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아왔는데 드디어 바로 이곳에서 가족들만을 위한 보금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은 아이들의 어머니, 바로 작가의 부인인 안나였다. 안나 그리고리에브나는 “우리 남편이 말하기를 이집 덕분에 우리만의 둥지가 생겼고, 초봄에 들어와 늦가을까지 나가기 싫을 정도로 기쁨이 차오는 곳이 생겼다 하였지요. 남편은 이곳을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위한 곳으로 여겼으며 특히 마당에 자리한 러시아식 사우나를 좋아했지요.”라며 회고를 남겼다.

행복의 정점을 이룬 스타라야 루사에서 작가는 생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창작에 임한다.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시골 마을 스코토프리곤예프스크 또한 스타라야 루사가 단초를 제공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라마틱하면서도 비극적,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조시마 장로와 알료사 카라마조프를 통해 새로운 종교관과 기독교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최대 걸작으로 기억되고 있다.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던 순간, 도스토예프스키는 1880년 여름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었던 푸시킨 동상 제막식에 헌사하기 위한 글을 스타라야 루사에서 마련하였다. 장장 2주에 걸쳐 도스토예프스키는 선대 시인을 위해 글을 창작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2일 완성된 글을 들고 스타라야 루사를 떠나 제막식에 참석차 모스크바로 향하였다. 이후 행사가 진행되었던 6월 6일과 6월 8일, 도스토예프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스타라야 루사에 위치한 별장
작가의 생애에서 이곳에서의 생활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동상 곁을 모여든 청중을 향해 <푸시킨 제문>을 낭독하며 청중들로부터 위대한 선각자이자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현대의 작가라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으니,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 온 그는 1881년 1월 28일 아침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당시 그는 목에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몹시 쇠약한 상태였으며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에게 자신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예견했다 한다. 아내를 향한 마지막 부탁은 다름 아닌 성경책이었다.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나던 길목에서 우연찮게 만난 데카브리스트의 부인들이 선물한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지막을 보낸 페테르부르크의 집에는 그와 가족들이 살았던 당시의 향취가 아직도 가득 묻어났다. 아이들이 타던 목마와 숙기사 아내의 책상, 그리고 작가의 집필실과 거실, 이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이다. 집필실에 놓인 시계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사망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마치 이 공간 안에서 그의 죽음과 함께 그대로 정지해버린 듯 숙연하면서도 묘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수도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는 사시철 많은 이들이 찾아가 헌화하기에 늘 꽃이 만발하다. 발간된 지 족히 수십 년은 더 지나 보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낡은 저작을 옆구리에 낀 채 찾아온 백발의 노인들도 무덤 앞에 머리 숙여 예를 표하며 작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세월이 지날수록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새로운 독자들과 대면하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작품을 탐독하는 독자들이 있기에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늘밤도 살아 숨쉬어 도시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한켠을 조용히 거닐며 사색에 차 있을 것이다.

박정곤

- 고려기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려기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생의 마지막을 보낸 아파트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무덤



도스토예프스키 집 박물관에 전시된
아내 안나의 책상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음악

글 · 자료 최훈락



‘독일’ 과 연상되는 음악가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 또는 ‘바흐’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락(rock)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스콜피온스’(Scorpions, 락 그룹) 또는
 ‘헬로윈’(Helloween, 락 그룹) 정도로 알지 않을까.
 그렇다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대중음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음악의 조상급인 ‘바흐’(1685~1750)나 ‘베토벤’(1770~1827) 이후 아직까지도
 그들의 명성을 대중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그럼 북유럽은 어떨까? 우선 스웨덴의 유명 음악가는?

아마도 대부분 ‘아바’(ABBA, 팝 그룹) 또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Ace of Base, 팝 그룹). 혹시 이 그룹들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대표곡을 들어보면 누구나 ‘아!~’ 라며 한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밴드들이다.

그럼 노르웨이의 경우는? ‘아하’(A-ha, 팝 그룹)라는 그룹이 있다.

핀란드는? ‘스트라토바리우스’(Stratovarius, 멜로딕메탈 그룹)를 비롯하여 멜로딕 및 블랙메탈의 본산지로 유명하다.

독일과 비교해보면 북유럽의 음악은 고전주의 음악보다는 2차 대전 이후 팝 또는 락, 재즈 등의 음악이 발달했다. 반대로 스칸디나비아에 위치하고 있는 세 나라의 유명한 고전주의 음악가는 누가 있을까?(덴마크, 아이슬란드는 제외 하였기에 스칸디나비아라고 생각해도 무관함)



‘페르귄트 모음곡’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낭만시대 작곡가 ‘그리그’(Edvard Greig, 1843~1907)가 북유럽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페르귄트의 모음곡’ 중 ‘솔베이지의 노래’는 음악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며 많은 성악가들이 즐겨 부르는 레퍼토리로 알려져 있다.



Scandinavia

그리고 올해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다.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북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핀란드가 올해 독립 100주년을 맞았다. 핀란드가 낳은 최고의 후기 낭만시대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가 한 몫을 하리라 예상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음악적인 성격상 ‘그리그’와 함께 전형적인 민족주의 작곡가로서, 특히 그가 1899년에 작곡한 교향시 ‘핀란드야’라는 곡은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나타내는 유명한 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국가(國歌)는 독일인이 작곡하였고, 지금은 핀란드어의 가사이지만, 원곡의 가사는 러시아 이전에 핀란드를 통치했던 스웨덴계인이 작사를 하였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핀란드인들이 ‘얀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핀란드야’로 국가를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만큼 ‘시벨리우스’는 고전주의 음악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핀란드인들에게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음악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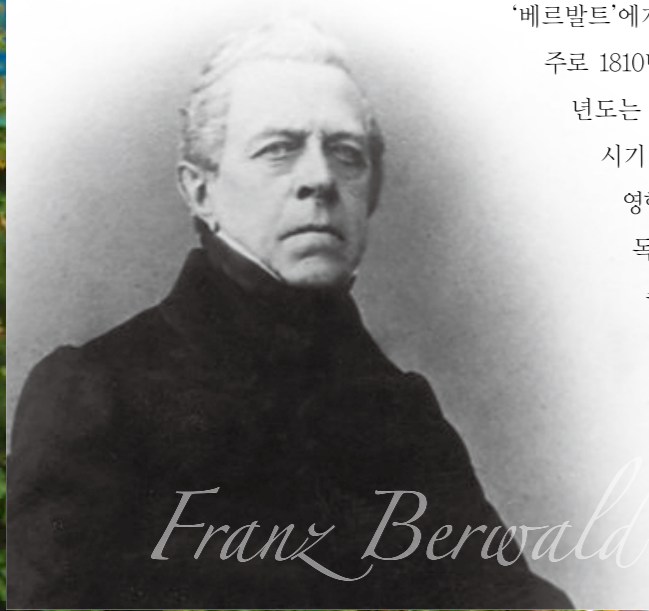


과거 스칸디나비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스웨덴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전주의 음악가가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빈약하다. 그 중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흥미로운 스웨덴 출신 ‘베르발트’(Franz Berwald, 1797~1868)는 낭만시대 고전주의 작곡가로,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마니아층만이 알 만한 사람이다.

바로크시대까지 유럽의 문화예술을 주름잡았던 이탈리아의 피렌체, 고전주의 시대를 주름잡았던 오스트리아 빈. 그 후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낭만주의. 그 가운데 가장 강세였던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

이 황금 시기에 홀로 외로이 독자적인 음악을 추구하며 버틴? 스웨덴의 ‘베르발트’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 주로 1810년 중반~1850년대까지의 작품이 많은데, 1810년도는 ‘멘델스존’, ‘쇼팽’, ‘슈만’, ‘리스트’ 등이 태어난 시기이니, ‘베르발트’(1797~1868)는 빈의 고전주의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지, 최소한 그의 초기작품에서는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수많은 낭만주의 시대 음악가들의 음악에 익숙해져 있는(거의 훈련된 상태라고 보여짐)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베르발트’의 곡을 감상해



보면 ‘쇼팽’인가, ‘멘델스존’인가, ‘슈만’ 같기도 하지만, 독일 특유의 무거움은 없이, 결코 짧지 않은 북유럽 특유의 시원스러운 ‘페시지’가 느껴진다. 여기에 브람스의 감성까지도 더러 보이는 상당히 복잡 미묘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감상이 끝나면 결국 복잡 미묘한 그것이 바로 ‘그’ 만의 매력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르발트’는 역사에 남는 수많은 음악가들처럼 다양한 편성의 곡들을 꽤 골고루 작곡했다. 5개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피아노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순협주곡 그리고 수많은 편성의 실내악곡들, 합창곡을 비롯한 오페레타, 오페라까지 작곡한 전형적인 멀티 작곡가라 볼 수 있다.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상반될 정도로 다른 문화를 가진 세 나라. 그들만의 다채로운 문화가 찬란하다.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이 기회에 스칸디나비아의 세 나라의 음악을 감상하며, 좀 더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길고 시원한 멜로디, 의외의 서정성, 불필요한 난해함이 없는 스칸디나비아 음악들을 감상해 보면, 북유럽의 자연을 담은 이국적인 음악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훈락

- 피아니스트
- 앙상블 인(인) 리더, 앙상블 MSG 예술감독, 주)스타엔즈 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연주자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피아노 'Kuenstlerische Ausbildung' 졸업
- 트로싱엔 국립음악대학 피아노 'Solistische Ausbildung' 수료
- 계명대학교, 국립 안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역임
- 솔로 앨범 '내 마음의 스케치' / 듀오 앨범 'Romance' 발매

millennium

Let me in

The Look of Silence

차갑고

뜨거운 Antichrist 북유럽 영화

글·사진 김중기

In a Bette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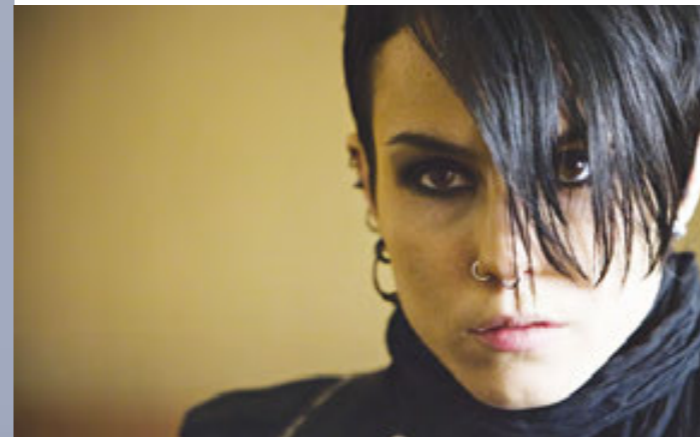
Hereafter

millennium

북유럽 영화를 처음 본 것은 스웨덴 그룹 아바를 소재로 한 영화 '아바: 더 무비'(1977년)였다. 1977년 영화지만 국내에 개봉된 것은 1979년 12월경으로 기억된다. 재개봉관 송죽극장에서 가슴 두근거리며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70년대는 '아바(ABBA)'의 전성시대였다.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워털루'로 대상을 차지하고 잇따라 '맘마미아', '댄싱퀸' 등 히트곡을 내면서 국내 팬들을 매료시켰다. '아바: 더 무비'는 여기에 편승해 개봉된 영화였다. 내용은 지극히 단순했다. 어느 기자가 아바의 공연투어를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인터뷰에 성공한다는 줄거리였다. 영화적 플롯도 연기에 내용도 없었지만, 어차피 콘셉트는 아바였다. 아바의 화려한 공연무대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 각본, 편집을 한 사람이 바로 라세 할스트롬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 그는 1985년 '개 같은 내 인생'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스웨덴 감독이었다. 이후 줄리엣 비노쉬와 조니 림의 '초콜릿',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역으로 나온 '길버트 그레이프', 할리우드판 '하치 이야기' 등을 연출했다. 현재는 할리우드로 재편되었지만, 스웨덴의 영화는 뿌리도 깊고, 아직도 역작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편이다. 전세계인 사랑을 받아온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과 영화학도들의 교과서적인 감독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고향이 아니었던가.



최근 '밀레니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밀레니엄 시리즈'는 눈 덮힌 차가운 배경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 극단의 폭력과 혐오, 타락이 뒤섞여 이국적이면서 음험한 북유럽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영화다. 작가 스티그 라르손이 15살 때 윤간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떨쳐낼 수 없었던 끔찍한 기억이 대하소설로 투영된 작품이다. 1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2부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 3부 '별집을 발로 찬 소녀'가 2009년 한 해에 스웨덴에서 개봉됐다. 악을 응징하는 불의 화신인 여주인공 역의 스웨덴 여배우 누미 라파스는 이 시리즈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2012년)에 전격 발탁됐고, 이후 '퍼펙트'(2013년), '차일드 44'(2015년), '에이리언: 커버넌트'(2017년), '스파이 게임'(2017년)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할리우드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캐릭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최근 스웨덴 영화 중에 북유럽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뱀파이어 영화 '렛 미 인(Let me in)'(2008년)이다. 통상 뱀파이어 영화는 끔찍한 호러영화다. 공포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인간의 심상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 사랑도 이별도, 기다림의 절실함과 아련함도 없는 영화가 바로 뱀파이어영화다.



Let me in

그런데 '렛 미 인(Let me in)'은 전혀 다른 스타일로 풀어나간다. 이 영화는 스웨덴 토마스 알프레드슨이 2004년 유럽에서 출간된 온 린퀴비스트의 소설 'Let the right one in'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1982년 스웨덴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12살 '왕따'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와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12세 소년 오스칼(카레 헤레브란트). 늘 칼을 들고 다니지만, 애꿎은 나무에만 화풀이를 할 뿐이다. 눈 내리던 어느 날 밤, 창백한 얼굴을 한 수수께끼 소녀 이엘리(리나 레안데르손)를 만난다. 차가운 북유럽의 밤이지만, 그녀는 반소매 차림. 처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둘은 곧 친구가 된다. 그리고 설레는 감정도 싹튼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피가 빠진 시체들이 계속 발견된다. 몇몇은 뱀파이어의 공격도 받는다. 오스칼은 그녀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눈치 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오스칼의 사랑은 깊어간다.

'렛 미 인'은 섹슈얼하지도 않고, 도심을 고공비행하는 뱀파이어의 가공할 초능력도, 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신세대 뱀파이어도 없다. 남루하고, 처절하게 외로운 비운의 어린 뱀파이어가 하얀 얼굴에 금방이라도 눈망울이 쏟아질 듯 애처로운 모습으로 나온다. 제목은 '들어가고 돼?'라는 뜻이다. 이엘리는 늘 창문에 붙어서 '들어가고 되느냐?'고 허락을 구한다. 뱀파이어가 인간의 공간에 들어가려면 초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작자의 독특한 설정이다. 원작에는 뱀파이어가 인간의 허락 없이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온몸의 피가 솟구치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인간과 뱀파이어의 공간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경계다. 그러나 타인의 가슴, 타인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애절한 바람은 오스칼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희생과 관심, 사랑이 필요한 같은 유기체이면서, 다른 생명을 가진 둘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설정이다. 늘 하얀 눈이 내리고, 얼음으로 덮인 북유럽의 작은 마을이란 배경이

The Look of Silence

낮선 뱀파이어의 느낌을 더해준다. 어둠이 내리면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을씨년스런 거리, 숲, 가난한 사람의 저층 아파트는 살아가기 위해 피를 찾아야 하는 이엘리의 절박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하얀 눈 위에 뿌려지는 붉은 피, 창백한 이엘리의 입가에 묻는 피는 슬프게도 아름다운 이 영화의 이미지이다.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장편소설을 영화화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2014년)은 1905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노인이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코믹하고도 유쾌하게 그려냈다. 100세 생일날 슬리퍼 바람으로 양로원 창문을 넘어 탈출한 노인이 우연히 갱단의 돈가방을 손에 넣고 자신을 추적하는 무리를 피해 도망길에 오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노인이 겪은 세계사 격변기의 에피소드들이 할리우드 영화 '포레스트 검프'처럼 삶의 지혜를 성찰적으로 보여준다. 1967년 슬픈 사랑의 이야기 '엘비라 마디간'부터 최근 2015년 '오베라는 남자'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영화는 할리우드의 전형을 넘어 근대 영화에서 시작된 영화적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영화의 힘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침묵의 시선'(2014년)이다. 이 영화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합작영화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닿는 곳이 서방의 그 누구도 침묵했던 동아시아의 역사 현장이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기억을 좇아가는 연작으로 '액트 오브 킬링'(2012년)의 후편이다. '액트 오브 킬링'이 가해자 입장에서 그러다면, '침묵의 시선'은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인도네시아는 350년의 식민시대를 겪은 나라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의회를 탄압하고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그의 독재정권은 군부의 쿠데타로 무너졌다. 군부는 쿠데타를 공산당이 벌인 일로 몰면서 숙청에 나선다. 공산당뿐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일로 폭력집단까지 가세해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진행됐다. 어떤 이는 100만명, 또 학살을 주도했던 어떤 인물은 300만명을 넘게 죽였다고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서방은 이 학살을 모른 채 했고 학살범들은 지금까지 영웅 대접을 받으며 부귀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학살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조슈아 오펜하이머는 학살 가해자들을 찾아 50년전 학살을 영화로 재현해달라고 제안한 뒤 그들이 영화를 준비하고 찍는 과정을 '액트 오브 킬링'에 담았고, 당시 형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 나선 동생의 이야기를 '침묵의 시선'에 담았다. 감독은 두 편의 색깔과 느낌을 달리한다. 하나는 살인의 행위(act)가 아직 위세를 떨치는 동적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는 침묵의



이름으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시선(look)의 정적인 느낌으로 그려냈다. 1965년 인도네시아의 대학 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 잔혹한 집단 살인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이다. 심지어 TV 토크쇼에 나가서도 얼마나 자신들이 효율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자랑한다. 탁자 다리를 목에 걸쳐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숨이 막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노래를 불렀다는 대목에서는 모골이 송연해 질 정도로 분노가 느껴진다.

과연 정치와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보다 더 큰 것일까. 그 어떤 죄책감도 양심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이 태어난 그들을 보면 피가 말리고, 오금이 저린다. 미국과 옛 소련,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이 애써 외면했던 그 현장을 북유럽 국가들이 다큐멘터리로 고발한 것이다.

북유럽 영화 감독 중 빼놓을 수 없는 이가 덴마크 감독 라스 폰 트리에다. ‘유로파’와 ‘브레이킹 더 웨이브’로 1991년과 1996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2000년 ‘어둠 속의 댄서’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감독이다. 그는 기술과 체제에 안주하는 할리우드 감독과 달리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기술로 자유로워지자는 내용의 ‘도그마 선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도 서슴지 않아 그의 영화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선다.

#헨델의 장엄한 아리아 ‘올게 하소서’가 흐르는 밤. 내리는 눈을 보며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부드러우면서 걱정적인 육체적 탐닉에 빠져 있는 그 순간, 갓난아이가 침대를 빠져나와 창턱에 오른다. 눈송이가 아래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턱에 선 아이의 위태로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부는 쾌락에 뜨거운 입김을 내뿜는다. 그리고 곧이어 아이는 추락하고 만다. #

‘안티 크라이스트’의 프롤로그는 고속 촬영으로 찍은 흑백영상을 아리아에 맞춰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준다. 아리아의 선율과 소담스러운 눈송이가 한없이 아름답지만, 그 속에 깔린 이면에는 원죄의 씻을 수 없는 어두움으로 가득차 있다. 프롤로그로도 이미 충격적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관객의 영혼에 상처를 입혀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도발적인 영상에 소름이 끼친다. 아이를



In a Better World



잃은 부모는 고통스럽다. 특히 엄마(샤를로트 갱스부르)는 자신의 쾌락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입원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증세가 심해지자 심리치료사인 남편(윌렘 데포)이 직접 나선다. 마음의 병이 깊어 약물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 그는 아내를 데리고 숲으로 간다.

영화는 프롤로그-비탄-고통(혼돈의 지배)-절망(여성 살해)-세 가지-에필로그 등 6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비탄에 빠진 이들이 혼돈의 고통에 절망하고, 씻을 수 없는 원죄적 한계에서 헤어날 수 없고 극단으로 치닫는다. 감독은 숲에 간 한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켜 둘의 세밀한 감정을 그리면서 갖가지 상징을 통해 인간 본성을 파고든다. 여자는 금단의 사과를 먹은 이브처럼 불안에 떨고, 남편은 면죄된 아담처럼 이성을 잃지 않는다. 영화는 원죄의 이름으로 가해진 여성 잔혹사를 성기훼손까지 치달으면서 충격적으로 그려 내주고 있다. 현대판 아담과 이브의 걸잡을 수 없는 애증이다. 밀턴의 ‘실낙원’에 뿌리를 둔 이 영화의 제목이 ‘안티 크라이스트’인 것은 이성인 크라이스트에 대척에 있기 때문이다. ‘에텐의 동산’은 끔찍한 기운이 가득 찬 숲으로 상징되며 거기에서 인간 내면의 지옥도를 그려준다.

위낙 원초적 본능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잔혹한 묘사에 대한 호불호도 있다. 그러나 상징과 은유, 포스트모던한 화면 구성 등 영화적 가치 또한 높은 편이다.

‘인어 베러 월드’(2011년), ‘히어 애프터’(2016년)처럼 잔잔한 일상에 파고드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미결처리반’ 시리즈처럼 잇고 있던 폭력의 반복 등 제작편수에 비해 문제작들이 많이 것이 북유럽 영화의 특징이다.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폭력에는 이유가 있고, 비극에는 우정과 가족의 따뜻한 연대가 있는 것이 이들 영화들이다.

추운나라에서 온 북유럽 영화들은 뜨겁고 강렬한 느낌이 살아 꿈틀대는 눈 속에 핀 가시꽃 같아서 지금, 이 겨울에 본다면 더욱 그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다.

김중기

- 1990~2009 매일신문사 문화부 차장
- 2007~2009 대구MBC '힐링시네마' 패널
- 2009~2014 대구문화재단 문화기획부 팀장
- 문화공간 필름통 대표
-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국장



자연과 더불어 생을 나누는 북유럽



글 · 사진 김승열

마음의 힐링을 찾아~

'여행...' 사진이 직업인 나에게 여행이란 단어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묘한 매력을 지닌다. 여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행 중, 다녀온 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여행을 계획해보는 시간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여행의 맛에 흠뻑 빠지게 된다. 이렇듯 몇 달 내내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기도 한다. 나의 여행 파트너는 늘 남편이다. 지난여름, 북유럽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즐기고 오자는 여행 목표에 남편과 의견을 모았다.

'뭉쳐야 뜬다'는 TV 프로그램처럼 이번에는 패키지여행에 우리의 일정을 맡겼다. 여행일정과 교통수단, 숙박, 식사 등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는 패키지여행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여행 준비가 번거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여행사에서 대응해 준다는 점도 좋다. 단체 행동을 해야 하고,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여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몸과 마음의 힐링이 최우선 목표였던 이번 여행은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패키지여행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런 목표에 걸맞게 묵직한 카메라의 노예에서 벗어나 가볍고 편안한 소니미러리스 카메라를 또 하나의 파트너로 삼아 동행하였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그 중, 청정국 노르웨이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Norway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두 세계

/ 노르웨이(Norway)

북유럽의 여름은 고귀하다. 매서운 바람과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었던 산천과 초목이 드디어 사르르 몸을 녹이며 사람을 반기는 계절이다. 그야말로 북유럽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기다. 그러한 여름의 한가운데, 청정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노르웨이를 찾았다. 노르웨이의 길을 지나다 보면 천지가 나무다. 옛날 달력에서나 보던 푸르른 초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들은 드문드문 자리해 있어 유달리 한적한 느낌을 준다. 노르웨이의 어느 곳에서든 걸어서 1, 2분이면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생활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해진 모양과 구획을 지키기 위해 유지보수에 힘쓸 필요도 없다.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심 속에 힘겹게 솟아 있는 나무들과는 그 품새가 달랐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또 독립적이다. 노르웨이에는 인간이 꾸며내지 않은 진짜 자연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자연을 외락 밀어낸 다음, 뒤늦게 조그마한 틈을 만들어 세를 주었다. 자연이 살아 있지 않은 우리의 도시에는 여유가 없어 보인다.

생생한 자연의 흔적

/ 송네 피오르드(Sogne fjord)

피오르드(fjord)는 거대한 빙하가 지나간 길을 따라 생긴 U자형의 깊은 골짜기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피오르드인 송네 피오르드(Sogne fjord)가 바로 노르웨이에 있다. 피오르드를 지나고 있다면 묵직한 면서도 역동적인, 웅대한 자연의 움직임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온화하게 웅크린 우리나라의 산들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좁고 굽은 길을 따라 힘겹게 도착한 그 곳, 하얀 머리털을 뒤집어 쓴 꼭대기의 만년설은 여름의 온기가 반가운 듯 쉼 없이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저 뒤편의 빙하는 여전히 느긋하게 움직이며 골짜기를 깎아내고 있다고 한다. 자연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자연의 존재감이 이다지도 생생하기에, 노르웨이의 누구도 함부로 자연을 침범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Sogne fjord



그림 같은 자연 속으로

/ 게일로(Geilo)의 시골마을

늦은 저녁 도착한 거울 같은 호수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게일로(Geilo)의 시골마을은 마치 빛을 투사하기 위해 땅 위에 펼쳐진 초대형 스크린 같았다. 딱히 볼 것이 있는 것도 아닌 작은 휴양지 마을이지만, 나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을 선사해준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 드넓게 펼쳐진 초지는 편안하게 숨쉬는 짐승의 등줄기처럼 일렁거렸다. 낮게 깔린 풀들이 수시로 바뀌는 태양빛을 포착해낸다. 불규칙적인 구름의 움직임이 한 눈에 보일 정도다. 복위가 높은 북유럽 지역은 백야(白夜)현상으로 밤 10시 정도가 되어야 컴컴해진다. 정점을 지난 해가 천천히 낮아지고 있던 8시경,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의 창으로 비친 차경은 <빛을 그린 사람들>에서 수시로 변하는 빛을 담기위해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리던 모네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풍경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모네의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Ge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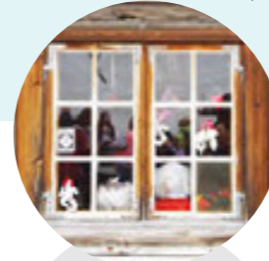


Bryggen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

/ 베르겐(Bergen)의 브뤼겐(Bryggen) 지구

노르웨이의 유서 깊은 항구도시 베르겐(Bergen)은 전통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 베르겐의 브뤼겐 지구는 독특한 목조 가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현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공예품 판매점 등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목조 가옥은 화재로 여러 차례 훼손되었지만, 초기의 건축설계도를 잘 보관한 덕에 과거의 양식과 건축 방식에 따라 복원되어 있었다. 지난날 북유럽 지역에 유행했던 중세의 목조 건축물의 구조를 낱알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오늘날 브뤼겐에는 과거의 목조 건축물이 60여 채 가량 남아 있다고 한다. 내가 방문했을 때에도 몇몇 건물이 수리 중이었는데, 전면에 본래의 건축물과 비슷하게 프린트를 한 천으로 건물 전체를 덮어 놓은 것이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흉물스런 천막을 덮고 리모델링을 하는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떠올려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자연스러운 조화를 생각하는 노르웨이의 문화가 만들어 낸 광경이 아닐까.



김승열
- 대구사진영상연구원 대표





48



Henry David Thoreau

통나무집 아저씨, 소로우 탄생 200주년을 맞으며...

글 · 사진 신 영

해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쯤이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우리 집에서 운전으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콩코드에 월든 호수(Walden Pond)의 오두막집 아저씨 소로우를 만나러 다녀오곤 한다. 언제나처럼 월든 숲속에 들어서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는 것은 소로우의 그 맑은 정신이 흐르기 때문일 게다. 미국의 데이빗 소로우를 만나면 한국의 법정 스님이 오버랩 된다. 두 분의 그 검소함과 청렴함이 서로 소통(疏通)해서 일게다. 이렇듯 가까운 곳에 귀한 분이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고 긴 숲속 Walden Pond의 숲길을 걷노라면 평안 그 자체다.

월든 호수(Walden Pond)에서

1
 숲 사이를 비집고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자리
 나무 끝에는 남은 여름이 타고
 노랗게 물들다
 붉게 물들이다
 남은 초록의 기억들마저
 푸른 하늘이 안고 내려와
 월든 호수(Walden Pond)에서
 오색찬란한 하늘이 열리고
 잊었던 추억이
 잃어버렸던 꿈들이
 곁 따라 기억을 안고 넘실댄다

2
 숲 속 나무이파리 셋길에
 오두막 작은 문이 열리면
 햇살 너머 푸른 꿈 달려오고
 통나무집 아저씨 새벽을 열어
 숲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에
 흥얼거리며 하루를 맞고
 익숙한 고독에
 저녁 놀 붙어지면
 삶의 가장자리 찰싹이는 숨결
 호흡하는 영혼의 쉼터에서
 아직도 바래지 않은 꿈을
 잊히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신 영의 시 중에서>

소로우의 '월든'을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다. 그의 생애를 통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단조로운 삶이 몸과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거듭해본다. 하지만 어찌 그 삶이 그리 쉬울까 말이다. 다양함과 다채로움의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진정 행복한가? 하고 묻고 싶다.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답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빠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물질만능이 가져다주는 나름 편안함과 즐거움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생각에 참견도 싫고 고루하게 생각에 생각을 덧입히기도 싫을뿐더러 파헤치기는 더욱 싫은 요즘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그럴 것이다.

데이빗 소로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저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타인들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의 글들을 통해 그를 알 수 있듯이 그는 시인이고 문학가였으며 사상가였다. 환경 보호론자이며 동식물을 사랑하는 동물애호가였고, 시인이었으며, 문학가였고, 초자연주의 사상가였다. 하지만 이 여럿의 수식어들이 그를 말해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를 이 중의 어느 한 이름에 한정시킬 수 없는 사람인 까닭이다. 팀 호만의 표현에 의하면 소로우는 환경운동가라는 단어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환경운동가였으며, 미국 환경보호주의의 요람은 "월든 호수의 물결에 흔들렸던 그의 보트"였다는 것이다.

그는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와 함께 문명인들에 대해 아니 문명인들에 속한 자신을 깊이 묵상(명상)하면서 거듭 생각했던 것이다. 월든 호수가 가장자리에 작은 통나무집을 지어 살면서 자연현상과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의 꼼꼼한 기록은 그를 탁월한 동식물 연구가, 탁월한 박물학자, 곤충연구가, 기상연구가, 콩코드 지역의 강과 호수에 대한 호소학(湖沼學) 연구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던” 고독과 구도의 작업은 그를 깊은 사색의 사상가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연 속에서 걸었던 길은 그냥 길이 아닌 구도자의 길어 되곤 했던 것이다.

“달빛이 내리는 밤에는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까지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사물들은 복잡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심란해지지 않는다.
달빛이 내리는 밤은 마치 물과 빵만의 식사처럼 단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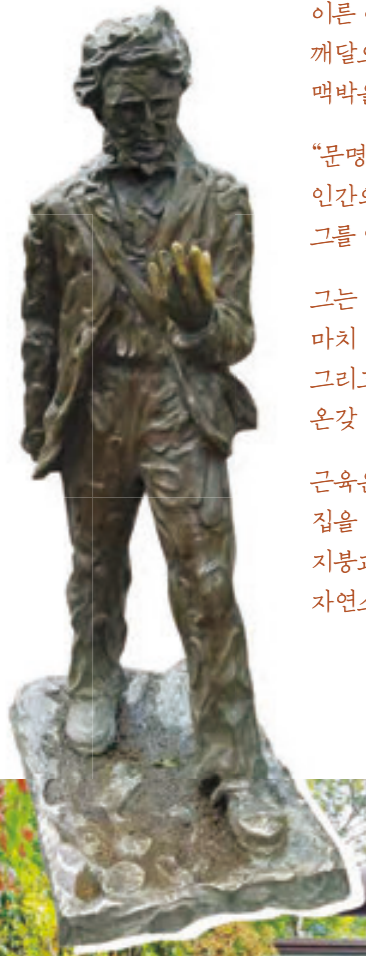
“아침과 봄에 얼마나 공명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건강을 가늠해 보라.
자연의 깨어남을 보고도 그대 속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을 해도 잠이 달아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가장 먼저 깃가를 두드리는 새의 노랫소리에도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깨달으라, 그대 인생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버렸음을,
맥박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문명인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집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집은 감옥이다.
그를 압박하고 속박하는 감옥, 그를 보호해 주는 편안한 안식의 쉼터가 아니고 말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마치 자신이 지붕을 떠받치고라도 있는 듯이.
그리고 마치 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자신을 덮칠 것처럼
온갖 무장을 하고 있고 발은 저 밑 지하실을 기억하고 있다.

근육은 결코 긴장을 푸는 법이 없다.
집을 정복하고, 그 속에 편안히 앉아 있는 법을 배우며,
지붕과 바닥과 벽이 하늘과 나무와 땅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고 있는 일은 매우 드물다.”

- <데이빗 소로우의 산문 중에서>



그는 현대인들의 물질문명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170여 년 전부터 했던 것이다. 지금의 이 현실을 그는 이미 깨달아 깨우치고 가슴 아파했던 것이다. 그래서 몸소 자신이 실천하며 삶을 노래했던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한 사람이었으며 자연인으로 자연의 한 일부인이었던 것이다. 소로우의 생애를 만날 때마다 가슴 밑바닥의 깊은 생각과 마주하게 한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서 있는 것인가. 하고 묻게 하곤 한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멋진 삶을 실천하며 살던 데이빗 소로우가 내 마음 가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월든 호수가 내 집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감사가 차오른다.

“소로우 (Henry David Thoreau), 1817. 7. 12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1862. 5. 6 콩코드. 미국의 수필가, 시인, 실천적 철학자. 걸작 <월든 : 숲속의 생활 Walden : or, Life in the Woods>(1854)에서 다른 초월주의 원칙대로 살면서 평론 <시민의 반항 Civil Disobedience>(1849)에서 주장한 대로 시민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소로우는 1817년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이듬해 이사를 했다가 1823년 콩코드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했다. 그가 후에 성인이 되어 마을에 대해 애증의 감정을 느꼈다고 하나 그곳의 아름다운 숲, 계곡과 초지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애정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곳은 여전히 그가 속한 세계였다.”

“1828년 부모는 그를 콩코드 아카데미에 보냈다. 그리고 콩코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833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모범생이었지만 학점에는 무관심했으며,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1837년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교직을 지원해서 이전에 다녔던 콩코드의 그레머 스쿨에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엄격한 교사 역할이 맞지 않아 고민 끝에 2주일 후 그만두었고, 기업인 연필제조업을 꾸려가던 아버지를 돕게 되었다. 1838년 6월 형 존의 도움으로 작은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진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유지되다가 존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문을 닫았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현대문명에 대한 거부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한 자연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했던 미국의 시인이고 문학가였으며 사상가였다. 2017년 7월 12일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콩코드에서 태어난 지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금도 월든 호숫가에는 현대문명에 지친 많은 인파들이 소로우의 정신을 기리고자 소로우가 살던 오두막집을 찾는 것이다. 그 오두막집 주인아저씨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생존 상태가 파괴될 것을 미리 염려했던 그의 맑고 깨끗했던 정신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그림고 간절한 까닭인 것이다.



신 영
- 재미 시인 · 칼럼니스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글·사진 김지명

52

수년 전에 무대감독이 직업인 여자주인공이 등장하는 아침드라마가 있었는데 작가분이 무대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지인을 동원하여 내게 연락, 자문을 구하셨다. 드라마 제작 한참 전이었는데 만나서 무대감독이 공연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실 무대감독은 공연 쪽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 공연 밖 사람에게 생소한 건 당연하다.

드라마가 TV로 방영 중에도 보조 작가분들이 장면에 대해 문의해왔다. 거기서 어쨌든 아침드라마의 속성(?)상 살인이라든가 복수가 중심인지라 공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분을 드러내어 사건 전개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사다리를 밀어 넘어뜨린다든가, 조명기기를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설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무대라는 공간에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는 상황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해서 안전한 무대를 만드는 게 최우선인 나는 그런 설정을 보여주는 대본을 접할 때마다 "이러면 저 잡혀가요"를 연신 남발하며 펄펄 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드라마라는 허구의 세계라 해도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나 스스로 제공하거나 묵인하는 건 끔찍했던 것이다.

공연무대는 언제나 안전이 갑(甲)

실제로 무대에서 일하는, 특히 무대감독인 내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연출적 콘셉트나 예술적 비전도 안전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무대는 안전을 지향한다. 연출가는 비상구 등이나 계단이나 통로등을 꺼서 칠혹 같은 암전을 만들고자 하나 위험하다는 이유(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외국 공연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공연에 맞춰 우리 공연현장을 바꾸고자 할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규정이요(그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역시 해외 공연을 할 때 해당 지역 규정을 파악해서 이를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연을 만든다. 공연은 안전이 갑인 세계다. 공연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 가장 안전한 무대를 지향한다.

안전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인이 경험한 곳들을 예로 들자면, 보통 유럽 극장들은 워낙 암흑을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많기에 암전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어느 극장에서 암전을 만들어 달라하니 절대 통로등을 끌 수 없었다. 이유인 즉, 이전에 암전 중 관객이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유럽 관객은 공연이 자기 취향이 아니면 주저 없이 나가버리는(일종의 항의의 표현) 경향이 있다. 우리처럼 끝까지 참고 보는 예의가 없다. 그러니 나가는 관객을 뒤편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영국의 경우엔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비를 까다롭게 점검한다. 5년쯤 전인가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거기 스태프는 상부에 누구라도 있으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모를 나눠주어 쓰게 했다. 난 그들이 말한 안전화를 챙기지 못하고 안전화처럼 보이는(?) 패션군화를 신었다. 그랬더니 거기 무대감독이 내 신발을 꼭꼭 눌러보더니(엄청 부드러웠으니...) "안전화는 각자 책임질 일이니 뭐라 안하겠지만 감독관이 와서 내쫓아야 자긴 모른다"고 했다. 바로 인근가게에 가서 사 신었다.(안전화는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다치지 않게 하는 목적이야 표면이 아주 딱딱하거나 징이 박혀있어서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독일은 방염 규정이 무엇보다 까다롭다. 낙엽을 5자루씩 깔아 배경으로 쓰는 연극 공연을 갖고 갔는데 낙엽을 어찌 방염처리 할 수 있으리. 공연 끝나자마자 쓸어 담고 다음 공연 전에 늘어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무대 한구석(관객 시야에 닿지 않지만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소방관을 대기시켰다. 또 다른 공연에서는 비닐 막을 달아 쓰는데 방염이 안 되었다며,(보통 플라스틱 소재는 방염을 하지 않는다. 선방염 소재는 고가라 차마 쓸 엄두가 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높이까지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그 공연장은 야외에 임시로 시설한 천막이었다. 보통 야외는 실내극장보다 방염 규정이 덜 까다롭다. 그리고 그들이 허용한 높이는 담배를 든 손이 닿지 않는 높이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거기 안에서 누가 담배를 피며, 비닐은 불꽃이 일지도 않는데 말이다.(불이 붙지 않으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를 더 위험하게 여기는 곳도 많다) 그러나 규정이 그렇다니 어찌겠는가. 그 장면이 진행될 때마다 가슴을 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많았기에 점점 안전 규정은 엄격해지고 있다.



공연무대의 다양한 금기사항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공연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 "동수가 나타났다"고 한다. 분명 공연 전에는 멀쩡하던 조명이 공연 중 특정 장면에서 작동하지 않는 다든가, 분명 제자리에 둔 소품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인 상황에 적용하는 말이다. 동수는 한국판 오페라의 유령인 셈이다. 나는 귀신을 믿진 않지만 간혹 공연을 진행하면서 SM(stage manager)데스크에 앉아 있다가 무대 상부를 바라보노라면 '동수가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나' 생각이 들어 오싹함을 느끼기도 했다. 배우나 스태프 중에는 동수를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무대 자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위험을 부르는 행위 자체를 터부 혹은 금기로 여겨 못하게 하기도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첫 공연 전에 '행운을 빈다(good luck)'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대신 '다리나 부러져라 break your leg(미국)'라든가 '퐁 merdre(프랑스)', '똥똥 toi toi toi(독일)' 등 품위 없는 표현을 쓴다. 일반적으로 극장에서는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서인 듯. 때문에 전에 관객과 섞여 진행되는 공연에서 우리 스태프끼리 서로 부르기 위해 휘파람 대신 '쪽쪽' 소리를 낸 적도 있다. 또 어디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공연할 때를 제외하고 말하지 않는단다. 맥베스가 마녀들과 연결되어 있는 탓일까. 또 남미에서는 극장에서 역시 공연 중 연기를 제외하고는 뜨개질을 하지 않는다고...

극장문화는 우리나라 공연역사에서 보면 수입문화이기에 우리에게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장과 관련된 유서 깊은 전통은 없다. 그저 한회, 한회의 공연이 무사히 끝나기를... 세상 가장 안전한 무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SM데스크의 평화가 곧 공연의 평화다!



김지명

- (현)극단 표현과 상상 / 안은미 컴퍼니 등 다수 극단의 제작무대감독
- 평창문화재단 올림픽기념행사 제작기술무대감독(2017. 9 ~ 2018. 3)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원 제작기술감독 역임
- 국립현대무용단 / SMG Tech 제작기술감독 역임

유럽 명화를 도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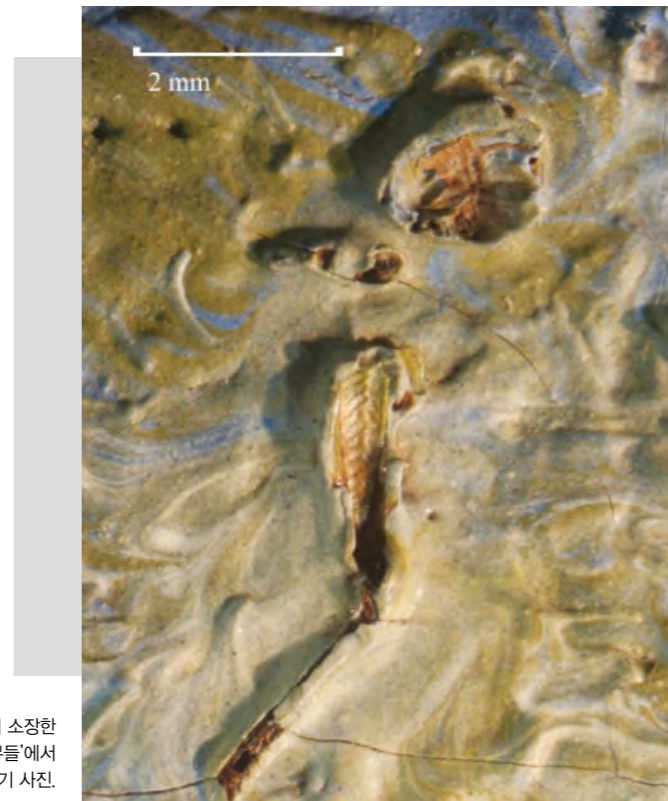
글·사진 김영동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이 포함된 도쿄의 특별전들



東京でヨーロッパ名画を見る。



넬슨 앳킨스 미술관이 소장한 고흐의 작품 '올리브나무들'에서 발견되었다는 메뚜기 사진.

최근 반 고흐에 관한 뉴스 셋

그림 속 100여 년 전의 메뚜기 사체

반 고흐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겐 매우 흥미로운 뉴스거리들이 최근 연이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소재 넬슨 앳킨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반 고흐의 '올리브나무들'이란 작품에서 128년 전 말라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메뚜기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고흐는 대개 야외에서 직접 풍경화를 그리곤 했는데 특히 과수원 풍경을 좋아해 자주 현장에서 제작할 때가 많았다. 캔버스에 물감을 두텁게 짓이기듯 칠하는 스타일인데다 유화가 채 마르기 전에 즉석에서 완성하는 탓에 그림에 티끌이나 곤충이 날아와 붙기도 할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감 속에 섞여 들어간 메뚜기 파편은 현장의 분위기에 열중한 채 그림에 몰입한 그의 제작태도를 눈앞에 선하게 떠올려주는 일화다.

고흐는 남프랑스 아를에 머물다 정신과 치료를 위해 근방 생 레미¹⁾의 한 병원에서 1889년 5월부터 1890년 5월까지 1년간 요양을 했는데 당시 병원 밖으로 외출이 허용된 유일한 환자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만 100여점의 드로잉과 150여점에 이르는 유화를 남겼다. 그 속에 유명한 '밀밭 풍경'과 '별밤'과 '사이프러스 나무' 그림이 있으며, 그리고 7점 이상의 '올리브나무들'을 그때 그렸다.

1) Saint-Rémy-de-Provence.



Olive Orchard(Olive Trees), 95.89 x 115.57 x 5.08 cm, 1889.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MO. 고흐가 생 레미 시절 그린 '올리브나무' 풍경.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The Olive Trees.
이 작품 역시 1889년 생 레미에 머물 때 그린 그림이다.

그림가격과 미술관 컬렉션들

또 다른 뉴스는 고흐의 작품 '들판의 농부'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천130만 달러(약 906억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월 13일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국내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이 기사는 낙찰자가 미 억만장자 낸시 리 베스와 페리 R. 베스 부부라고 밝혔다. 그 작품은 고흐가 1889년 앞서 언급했던 프랑스 남부 생 폴 드 모술 수도원²⁾에서 요양할 당시 그린 것이다. 고흐뿐만 아니라 이름난 거장들의 작품들은 흔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곤 하지만 이 같은 액수를 지불하고 그림을 사는 구매자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작품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공공 미술관에 걸리게 되는 게 역사적 현실이다.

2) Saint-Rémy-de-Provence에 있는 the Saint-Paul-de-Mausole hospital.



빈센트 반 고흐의 '들판의 농부', 1889년 작.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1월 13일(현지시각) 906억원에 낙찰되었다. 연합뉴스



독일 에센 폴크방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흐 작품.
생 레미 부근의 밀밭 풍경과 들판의 농부를 함께 그렸다.
The Wheatfield behind Saint Paul's Hospital with a Reaper, 1889. Folkwang

고흐의 도취되듯 열중한 그림들을 직접 대하면 누구나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많다. 게다가 이 같은 고액으로 거래될 만큼 그의 작품들에 대한 수집가들의 관심이 지대함은 물론 지금 대중적으로도 가장 널리 사랑 받는 작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흐의 작품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단연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미술관이고 그 다음 역시 네덜란드에 있는 크렐러 뮐러³⁾ 미술관일 것이다. 그밖에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런던, 베를린, 뮌헨 등지에 있는 유명미술관들에서도 고흐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유럽 바깥에서 찾는다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든지 뉴욕 현대미술관 및 워싱턴 D.C. 내셔널에서도 그의 그림을 찾을 수 있다. 가깝게는 일본의 미술관들이 고흐를 포함한 서양근대 명화들을 다소 소장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고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 The Kröller-Müller Museum : 이 미술관은 반 고흐 작품만 거의 90점의 유화와 180점이 넘는 드로잉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평소 4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도쿄서 열리는 빈센트 반 고흐가 포함된 특별전 소식

도쿄의 유명 컬렉션들에는 고흐의 작품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어서 평소 상설 전시 속에서 그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인상파 작가들의 특별전을 통해서 고흐를 비롯한 후기인상파의 거장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마침 도쿄의 우에노에서 다수의 고흐 작품과 유럽 근대명화들을 함께 볼 수 있는 2개의 훌륭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 하나는 도쿄도미술관의 '반 고흐와 재팬' 전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서양미술관의 '호쿠사이와 자포니즘' 전이다. 두 곳의 미술관에서 고흐의 작품들과 그와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도쿄도미술관(東京都美術館)에서 열리는 '반 고흐와 재팬' 전시 포스터. '돌고 도는(めぐりゆく) 일본의 꿈'이란 부제를 붙이고 있다.



먼저 도쿄도미술관(東京都美術館)에서 열리는 '반 고흐와 재팬' 전시는 흥미롭게도 일본인들도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인 고흐의 작품과 그의 생애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다. 고흐와 일본 둘 사이에는 미술사적인 영향 속에서 고흐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뒤에 일본인들의 고흐 사랑이 서로 맞물려 아주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둘의 관계를 풍부한 자료를 통해 기획해냈다.

전시는 고흐의 일기 속에 담긴 내용을 따라가며 그가 얼마나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일본 미술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양쪽 작품을 비교하며 확인시켜 준다. 고흐는 우키요에(浮世絵, 풍속화) 판화의 시각적인 양식에만 이끌렸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과 명상을 통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의 지향 등 마치 일본의 문화와 생활이 환멸스러운 자본주의적 사회의 대안인 듯 동경해마지 않았다. 그가 파리를 떠나 아를에서 고갱과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꾼 것도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상화한 것임을 알고 놀랐다.

이 전시는 또한 1920년대에 이번에는 일본에서 불었던 고흐에 대한 열풍으로 많은 작가 애호가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유럽으로 순례를 떠났던 사실을 함께 다루고 있다. 고흐의 작품 40여점과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 등 동시대인들의 참고 작품 50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6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3년 전부터는 본격적인 실무과정을 거쳐 성사된 전시회라고 하니 그 준비성과 실현의 완벽성을 읽을 수 있다.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마치고 나면 암스테르담 고흐 미술관에서 이동 전시하게 되는데 국제간 공동 주최와 상호 교환 전시가 일본미술관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国立西洋美術館, 'Hokusai and Japonisme', The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고흐 작품을 볼 수 있는 다른 특별전들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한 전시의 제목은 '호쿠사이와 자포니즘'이다. 19세기 후반 파리를 중심으로 '일본취미'의 붐이 일어났을 때 우키요에 판화가 한 중심에 있었다면 호쿠사이는 일본의 우키요에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명이었다. 특히 그의 작품은 많은 인상주의 및 후기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호쿠사이(1760-1849)의 성공비결은 그가 데시마 섬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유럽예술의 양식을 연구한 탓이라니. 당시 일본미술에 새로운 기법을 참조하여 참신하고도 과감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연 주목받는 인기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고흐와 재팬' 전의 경우에서 보았듯 문화와 예술에서 이 '돌고 도는' 영향 관계가 흥미롭다. 서양화와 호쿠사이의 작품을 일부 비교하는 전시방식을 채택한 것도 신선하다. 해외 유수의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까지 대거 빌려와 서양화 220여점과 채색목판화 70여점을 한 자리서 펼치는 전시인 만큼 동서미술을 함께 이해하는데도 유익하다.

도쿄 우에노 공원 내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이 두 미술관 외에 좋은 전시가 있는 한 곳을 더 추가한다면 하코네 플라미미술관에서 열리는 개관 15주년 특별전 '명작 100선' 전이다. 이 미술관은 여러 점의 고흐 작품을 가지고 있고 이번 전시에 한 점을 출품하고 있다.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11)

이야기로 만나는
유럽 빈티지 장난감
「STORY OF TOYS」展

글·사진 이정란(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기획)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토이 뮤지엄의 소장품 전시가 열렸다.

「스토리 오브 토이즈」 전시에 소개된 300여점의 장난감은 종이로 만든 액자형식의 무대인 페이퍼 시어터, 기차와 자동차, 목각인형, 로봇, 옛날 레고형식의 장난감, 테디베어 등으로 듣는 이야기, 보는 이야기, 읽는 이야기, 상상 이야기, 함께 만드는 이야기 등의 섹션으로 구성, 전시되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근대적 재료들이 발명되기 전 종이, 목각, 천으로 정성스레 만들어진 섬세한 빈티지 장난감을 통해 엄마·아빠가 읽어주던 동화 속의 이야기들을 추억하고, 유럽의 예술과 문화 이야기를 여행하듯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진행되었다.

작은 목각 장난감으로 표현한 노아의 방주, 피노키오, 까마귀와 여우 등 이솝우화와 그림동화책, 성경 책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장난감과 인형은 물론, 유럽을 순회했던 전시회 포스터, 종이인형 등의 일러스트레이션 인쇄물도 함께 전시하여 인근지역의 인쇄·출판 문화산업과 연관성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전시장 한편엔 '브뤼셀 토이 뮤지엄'의 역사와 수집과정에 대한 안드레 관장의 저서와 사진·영상 등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체험도 8차례 마련하는 등 지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전시장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었다.

〈브뤼셀 토이 뮤지엄〉

1985년 개관 이후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으며, 벨기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찾아봐야 할 장소로 소개되는 박물관이다. 장난감 컬렉터인 안드레 렘돈크 관장이 수집한 30,000여점의 컬렉션은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운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빈티지 장난감들이다. 장난감 컬렉션들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를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F갤러리 등에서 장난감 수집가의 벨기에 이야기로 소개되어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Alexey Nabiulin Piano Recital

차이코프스키가 선택한 '알렉세이 나비올린' 피아노 리사이틀

글·사진 허정무(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며칠사이 부쩍 추워진 초겨울 날씨를 녹여주는 따뜻한 연주가 지난 11월 21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렸다. 세계 3대 콩쿠르인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인정받은 [알렉세이 나비올린]을 초청하여 피아노 리사이틀을 개최했다. 베토벤의 '비창', '월광',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등 귀에 익숙하고 듣기 편한 곡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입문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연주가 되었다.



알렉세이 나비올린이 표현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 제8번 C단조 '비창'의 강렬한 첫 음으로 시작된 연주는 굳은 관객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몹시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 '비창'은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의 소나타이지만 알렉세이 나비올린의 '비창'은 곡의 프레이지마다 특유의 긴장감과 강렬한 선율이 정확한 템포와 유려한 흐름으로 표현되어 관객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간혹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작 '비창'과도 비교되기도 하는데,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은 피아노 협주곡으로 곡의 형식이 다르다.

이어진 베토벤의 '월광'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나비올린의 무대 쪽으로 몸을 당겨 앉으며, 눈과 귀를 모았다. '비창', '열정' 소나타와 함께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알려진 '월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귀에 익어서일까 관객들은 그의 연주를 따라가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놀라운 연주 실력에 나지막이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렬하게 때로는 짜릿한 분위기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휴식시간까지도 긴 여운을 만들어냈다.

차이코프스키의 탁월한 해석자인 피아니스트

2부는 차이코프스키가 선택한 피아니스트답게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로 관객의 마음을 한 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총 12곡으로 구성된 피아노 소곡인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는 '더 먼스(The month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을 열두 곡으로 표현하여 그 달에 맞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간결한 구성으로 작곡된 것이 특징이다. 알렉세이 나비올린은 더욱 담백하고 간결한 음색으로 표현해내었는데, 생동감 있으면서도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로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이번 연주는 와룡홀을 가득 채운 피아노 선율만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으며, 악기로써 갖는 피아노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세 번의 커튼콜에 응답한 나비올린이 선택한 앙콜곡은 드뷔시의 '아라베스크'였다. 아름답고 시원하면서도 우아한 멜로디를 들려준 마지막 곡으로 완성된 이번 무대는 피아노 소나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알렉세이 나비올린은〉

차이코프스키의 본고장 러시아 태생의 알렉세이 나비올린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중앙 특수영재 음악학교에서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여 199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회 청소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제23회 카사그란데 국제 콩쿠르'에서 1등상과 특별상인 슈베르트 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특히 2002년 참가한 제 12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당시 임동민이 4위), 심사위원장인 크라이네프에게 "24살의 이 피아니스트는 보기 드문 위대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었다."라고 극찬받으며 스타덤에 올랐고,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등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거장으로 러시아,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태생의 작곡자인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하여 195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창설된 국제 콩쿠르로 4년마다 열리며, 벨기에 퀴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폴란드 쇼팽 국제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린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남녀 성악 부문을 동시에 개최하며, 부문별 세계 최고 거장들이 심사하고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도 주어진다. 1974년 정명훈이 피아노 2위, 1990년 최현수가 성악 1위, 1994년 백해선이 피아노 3위를 차지하였고, 2002년 임동민이 피아노 4위, 2007년 임동혁이 피아노 공동 4위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박종민과 서선영이 각각 남녀 성악 1위, 손열음과 조성진이 각각 피아노 2, 3위, 이지혜가 바이올린 부문 3위를 수상하여 한국인들의 역량을 과시하였다.

예술아카데미의 결실 〈나도 예술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수강생들의 축제

글 · 자료 김경영(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선선한 바람이 가을 소식을 전하는 11월,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강의실이 분주해졌다.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나도 예술가〉 축제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가가 되어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움을 즐길 줄 아는 '생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아카데미의 축제인 〈나도 예술가〉가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아쉽게도 청롱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공연 발표 없이 전시회만 진행되었다. 수채화·유화, 서예·수묵화, 공예, 사진 등 17개 강좌에서 총 200여점이 넘는 작품들을 출품, 전시하면서 관람객과 수강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직업도 나이도 취향도 모두 다르지만, 예술을 사랑한다는 공통분모 아래, 한 자리에 모여 문화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키워온 수강생들의 실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 실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수강생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앞에



서 가족들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꽃보다 환하게 웃는 모습, 작품을 보기위해 전시장을 찾은 지인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며,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술이란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가가 되어 새로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처음 닥종이공예로 전시에 참여한 안남선씨는 "평소 관심 가졌던 닥종이인형을 만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나도 예술가〉 전시까지 참여하면서 아주 뜻 깊은 한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생활과 예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수강생들의 열정과 노력의 열매로 알차게 채워진 〈나도 예술가〉 전시를 통해 수강생들의 작품만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서 지역민들과 수강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생활문화예술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민들이 문화예술로 화합하며 다가가는 친근한 모습의 예술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해본다.



Art event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공연, 전시, 강좌 및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01 2017 희망달서 큰 잔치

소통, 나눔, 기쁨이 가득한 구민 문화축제



달서구의 한마당 큰 잔치인 2017 「희망달서 큰 잔치」가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주관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이틀간 펼쳐졌다.

'소통, 나눔, 기쁨이 넘치는 희망달서!' 주제로 열린 2017 「희망달서 큰 잔치」는 에코아트, 열린미술체험, 인디밴드 공연, 대학생 댄스공연 등 지역예술인 참여 및 창의발명체험과 대중가수공연(김연자, 박현빈), 웃음폭탄쇼(개그콘서트 붓말려 팀), 7080추억마당, 다문화어울림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풍성한 문화 나눔 축제로 진행되었다.

14일(토), 에코아트체험과 창의발명한마당, 선사시대 체험마당 및 프리마켓에 이어 저녁 7시부터 열린 메인 공연인 '희망나눔 콘서트'에는 마칭 퍼포먼스의 '렛츠 쇼'로 화려한 오프닝에 이어, '스윙트리와 아리현'이 들려주는 가을 팝페라와 전자바이올린 공연은 가을낭만의 무대를 가득 채웠다. 이어서 '소울마켓 인 대구출판'이 펼치는 댄스 파티는 관객과 공연자가 모두 함께 춤을 추며 축제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마지막 무대는 '아모르 파티'의 가수 '김연자'와 '오빠 한 번 믿어봐'의 가수 '박현빈'이 출연해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큰 잔치의 흥을 한층 더 북돋우었다.

15일에는 마쌀리나와 클래시도미넌트의 밴드공연과 함께 다문화 퍼레이드와 다문화 어울림제를 펼쳤으며, 세계문화음식한마당과 7080 DJ다방, 추억의 게임마당을 열어 남녀노소가 즐거워하는 추억마당을 선사했다.

글 · 사진 | 김은주(문화정책실)

02 2017 선사야생체험행사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 2017 「선사(先史)야생체험행사」가 지난 9월 13일 한샘공원(달서구 진천동)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마쳤다.

달서구는 진천동과 상인동에 분포된 고인돌(지석묘)군과 월암동, 진천동의 선돌(입석) 등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월성동에서 다량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적 가치가 입증되어 교육, 학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심 속 선사(先史)유적지에서 선사시대 야생체험 행사를 마련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가족단위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선사시대 체험 프로그램

선사 옷 · 팔찌 만들기와 산나물주먹밥 등 선사먹거리, 돌화살 만들기 및 사냥체험,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기, 나무막대기로 불지피기 및 음식 구워먹기, 선사타투 등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특히, 돌화살 만들기 및 사냥체험,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기, 나무막대기로 불지피기 및 음식 구워먹기, 전문 고고학자 체험 프로그램인 '돌돌탐험대' 등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독특한 체험도 열렸다.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선사유적 해설탐방 참여자에게는 스티มป์를 찍어줘 일부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선사하였다.

선사프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사프리마켓 '바리바리돌장'은 50여 개 팀이 참가하여 직접 만들고 꾸민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인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행사 틈틈이 팬플릇, 보컬 등 거리 버스킹 공연도 펼쳐져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선사유적 탐방 프로그램은 달서구에서 2014년도부터 탐방사업을 시작했으며,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입석에서 고인돌까지 잇는 A코스와 대천동 청동기 유적과 월성동 구석기 유적을 잇는 B코스의 탐방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 이웃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선사야생체험' 행사를 연계하여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모두 기대를 모았다.



글 · 사진 | 김승범(달서구 문화체육관광과)



performance



class



exhibition



cultural art

2017 달서구 미혼남녀 축제 『두근두근 페스티벌』

2017 달서구 미혼남녀축제 『두근두근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20일 웨딩테마공원(월광수변공원)에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렸다. 달서구만의 독창적인 도심축제인 미혼남녀 축제는 결혼에 대한 설렘과 함께 올바른 결혼가치관 정립, 작은 결혼식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두근두근 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예쁜 모습들



소풍 결혼식장

프로포즈 이벤트

커플매칭 프로그램

이외에도 '팔불출 만화가의 결혼생활(웹툰작가 마인드C)',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지역주민은 물론 월광수변공원을 찾는 청춘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전해주었다. 달서구는 지난해 결혼장려 사업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달서야 Wedding 하자 '29살 희망달서 청혼에서 결혼까지'

2017 '컬러풀페스티벌'에서 올해로 29살이 되는 청년 달서구가 '29살 희망달서, 청혼에서 결혼까지'라는 퍼포먼스로 결혼장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컬러풀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금 달서는 연애 중

- '만나뵈시데이' 운영 - 씬남쌜녀 매칭프로그램
- '쌜타는 동아리' - 싱글커뮤니티
- '고고이벤트' 운영 - 만나고 결혼하교
- '사랑의 끈맺기' 행사
- '결혼원정대' 운영

행복의 시작, 작은 결혼식

-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를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며, 결혼친화공원을 조성했다. (월광수변공원과 배실(상)공원은 웨딩테마공원으로 조성)
- 공공결혼식장 운영 : 10개소
달서구청 대강당, 웃는얼굴아트센터 야외공연장, 월광수변공원, 배실(상)공원, 이곡장미공원, 계명문화대학교 쉼터관벽오실, 계명문화대학교 잔디광장, 대구시종합복지회관 참살이예식장 대구도시철도공사강당, 대구시 교육연수원 연리지

자료제공 | 김순자(달서구 여성가족과) 정리 | 편집자

2017 평생학습대축제 | 달서구 참 별나데이!

"내가 진짜 달서구 스타가 되는 날"

2017 평생학습대축제 『달서구 참 별나데이~』가 지난 10월 21일(토) 월광수변공원에서 4,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풍성한 가을 맛이 축제로 열렸다. 주민자치경연(21팀), 런웨이(50팀), 미니콘서트(30팀), 체험·전시(58팀), 끼와 흥으로 모인 청소년(16팀) 등 177개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선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미니콘서트는 하모니카, 우쿨렐레, 아코디언 등 다양한 악기연주와 풍물, 댄스, 우리춤, 다 도시연 등 아마추어지만 동아리만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21개 팀, 595명의 주민이 참여해 최우수상(1팀), 우수상(3팀), 장려상(4팀), 인기상(3팀)을 놓고 각 팀마다 특유의 장기를 보여줬으며, 열띤 응원으로 관객과 참가자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무대를 만들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도원동 다이어트 댄스팀이 차지했다. 오후 4시부터는 평생학습대축제 개막행사와 함께 50여개의 동아리가 개성을 뽐내며 참여한 퍼포먼스 런웨이는 관객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깊어가는 가을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청소년 끼·흥 한마당은 힙합, 비보잉, 가요, 댄스, 뮤지컬 등 16개 팀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K-POP공연에 뒤지지 않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대상은 화려한 댄스를 선보인 대곡고등학교 천무팀이 수상했다.

자료제공 | 김영국(달서구 평생교육과) 정리 | 편집자

KBS전국노래자랑 <대구 달서구편>

지난 10월 27일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는 아침 10시부터 아 외객석이 가득 찼다. 예비좌석도 모자라 잔디밭까지 자리를 펴고 앉았다. 달서구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열린 KBS전국노래자랑 <대구 달서구편> 본선을 보고 응원하기 위해 모인 달서구민들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함께 모인 구민들은 응원 풍선을 흔들며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동네 가수, 우리 이웃의 장기자랑을 응원하러, 또 사회자 '송해'씨를 보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 언제나 청춘이신 송해 사회자가 관객의 환호에 노래를 부르자 노래자랑의 분위기는 한결 뜨거워졌다.



오후 1시, "전국~~ 노래~자랑!~~ 덩동덩동♪" 이라고 외치자, 관객들의 함성에 따라 노래자랑이 시작되었다.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본선 진출자들과 관객, 모두 즐거운 노래자랑에 빠져들었다. 최우수상에는 송승주씨(담뱃가게 아가씨)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배장경씨(곤드레만드레)가 수상, 장려상은 양윤미양(천년의 사랑)과 이재영씨(돌아가는 삼각지)가 받았으며, 인기상은 손광락씨 외 2명(따르릉) 및 박가연 학생 외 2명(어젯밤 이야기)이 받았다. '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 방송은 달서구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2018년 1월 14일 오후 12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 김규환(달서구 문화체육관광과) 정리 | 편집자

예술! 아는만큼 감상한다!

예감시리즈



슬기로운 미술생활

정효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일 시 | 1.5~1.26
(매주 금, 10시~12시)
수강료 | 3만원(4회)



김영동의 특별한 미술관 기행

김영동 미술평론가
일 시 | 12.8~12.29
(매주 금, 10시~12시)
수강료 | 3만원(4회)



권다현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올 겨울 떠나기 좋은 여행지

권다현 여행작가
일 시 | 12.14~12.28
(매주 목, 10시~12시)
수강료 | 2만원(3회)



피아니스트 최훈락과 함께하는 음악가를 듣다

최훈락 피아니스트
일 시 | 12.22~1.26
(매주 금, 11시~13시)
수강료 | 4만원(6회)



영화의 심장소리 영화, 인생을 말하다

김은경 시인, 심리상담사
일 시 | 12.13~2.21
(월 2회 수, 14시~16시)
수강료 | 4만원(총6회)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작은 변화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문의 | 584-8721~2



2017. 12. 25 (월) 11:00, 14:00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입장료 전석 10,000원 문의 웃는얼굴아트센터 (www.dscf.or.kr) 584-8719,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산타들이 펼치는 X-MAS 캐롤음악회

2017. 12. 25(일) 공연 30분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로비
|공연단체| 브라보 브라스 앙상블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